

19일 Market Index			
코스피	7271.66	코스닥	1084.36
	(-244.38)		(-26.73)
금리 (10년)	3.751	환율 (원/달러)	1508.80
	(-0.006)		(+8.50)



## 부서 간 충돌 넘어 사회전반 파장 성과급 배분, 근본적인 고민 필요

### 삼성전자 성과급이 남긴 과제

하이닉스발 성과급 요구 업계 파장 협상 결과, 산업전반 선례 남을 것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예고한 총파업을 사실상 하루 앞두고 노사는 막바지 담판을 벌였다. 노사 합의가 이뤄지면 21일 총파업은 피할 수 있지만 결렬된다면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이 예상된다. 협상 타결이든 파업강행이든, 정부의 파업봉쇄 등 이번 삼성전자 성과급 배분 갈등은 한국 사회에 새로운 고민거리를 남겼다. 특정 대기업의 새로운 형태의 노사분규가 수면 아래로 잠겨 가라앉을 뿐, 해결은 아니라는 것이 전반적 시각이다.

19일 삼성전자 노사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 둘째날 협상을 진행했다.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은 회의중간 기자들에게 “노사가 조금씩 양보하고 있다”며 타결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으나 노사 양측의 완전한 접점 도출은 쉽지 않았다. <관련기사 3면>

이번 협상의 본질은 성과급 금액이 아니었다. 누가 얼마를 가져가느냐, 즉 배분의 문제였다. 복수의 사업부가 공존하는 대기업에서 성과급 배분은 단순한 보상 문제를 넘어 부서 간 자존심과 공정성

인식이 충돌하는 지점이다. 이번 삼성전자 협상이 그 민낯을 드러냈다.

2차 사후조정에서 초기엔 노조 지도부는 부문 70%·사업부 30% 배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호황을 맞은 메모리와 실적 부진이 이어지는 파운드리·시스템·LSI 간 성과급 격차를 크게 줄이는 구조다. 한 DS부문 직원은 “24시간 라인을 돌리며 실적을 만들어냈는데 적자 사업부와 같은 선상에 놓이는 게 납득이 안 된다”고 토로했다.

그렇다고 노조 지도부의 논리를 무리한 요구로만 치부하기도 어렵다. 초기엔 노조가 DS부문 과반 지위를 유지하려면 파운드리 조합원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 때문이다. 한 DS부문 직원은 “파운드리·시스템·LSI가 노조 과반을 위해 필요한 건 아니다”면서도 “다만, 메모리가 실적을 이끈 만큼 그에 맞는 보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지금 협상안에서 파운드리에 배분되는 비율은 다소 높다”고 말했다.

DX부문 문제는 더 복잡하다. DS부문이 실적 부진에 빠졌던 시절 MX사업부가 회사 실적을 이끌었지만 DS부문 직원들은 그때도 성과급을 거의 받지 못했다. 이번엔 반대로 DS부문이 초호황을 맞았지만 DX부문은 협상 테이블에서 배제됐

다. 한 DX부문 직원은 “조합비를 내면서도 우리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 노조라면 존재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결국 사업부별로 호황과 불황이 엇갈리는 구조에서 성과급 배분은 단순한 숫자 싸움이 아니라 오랜 감정의 축적이기도 하다.

이번 중재안 기준을 보면 DS 메모리 직원과 DX 직원의 성과급 격차는 수십 배에 달한다. 비조합원·협력사 직원들과의 간극은 더욱 크다. 한 DS부문 직원은 “파업 끝나고 복귀해도 업무 폭탄이 더 머리 아프다. 결국 우리 고통으로 돌아온다”고 말했다. 파업을 원하지 않는 건 노조원들도 마찬가지였다.

문제는 이번 삼성전자 협상 결과가 산업계 전반의 성과급 협상 선례가 된다는 점이다. SK하이닉스발 성과급 요구는 이미 현대차·카카오·포스코로 번졌다. 노란 봉투법 시행 이후 쟁의 범위가 보상 체계까지 확대된 지금 그 파장은 예측하기 어렵다. 대기업 성과급 배분이 구성원 간 박탈감과 사회적 위화감으로 이어지는 구조, 그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없이는 이번 협상이 끝나도 다음 협상은 이미 예고돼 있다.

/구남영·차현정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9일 경북 안동시 한 호텔에서 한일 확대 정상회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뉴시스

## 가계빚 2000조 육박... 은행 줄고 2금융 늘어

한은, 1분기 가계대출 잔액 1865.8조 주택관련대출·기타대출 확대 영향

올해 1분기 가계신용 잔액이 1993조원을 넘어서 2000조원에 비깝다 다가섰다.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12분기 만에 감소 전환했지만, 비은행권과 기타금융기관 대출이 늘면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폭은 오히려 확대됐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1분기 가계신용’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993조 1000억원으로 전분기 말보다 14조원 증가했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에 카드 할부 등 판매신용을 더한 포괄적 가계부채 통계다. 증가폭은 지난해 4분기 14조 3000억원보다 소폭 줄었지만, 잔액은 2000조원에 근접했다.

가계신용 가운데 가계대출 잔액은 1865조 8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2조 9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 증가폭 11조 3000억원보다 확대됐다. 주택관련대출과 기타대출이 모두 늘어난 영향이다.

상품별로 보면 주택관련대출은 8조 1000억원 증가했다. 전분기 증가폭 7조 2000억원보다 커졌다. 기타대출도 4조 8000억원 늘어 전분기 4조 1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기관별로는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흐름이 엇갈렸다.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지난해 4분기 6조원 증가에서 올해 1분기 2000억원 감소로 전환했다. 예금은행 가계대출이 감소한 것은 12분기 만이다.

예금은행에서는 주택관련대출 증가폭이 축소되고 기타대출이 감소로 돌아선 영향이 컸다. 예금은행 주택관련대출은 3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고, 기타대출은 6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대출은 8조 2000억원 늘었다. 전분기 증가폭 4조 1000억원의 두 배 수준이다. 상호금융이 5조 1000억원, 새마을금고가 2조 4000억원 증가하면서 비은행권 대출 확대를 이끌었다.

기타금융기관 등의 가계대출도 5조원 증가했다. 주택관련대출 감소폭이 줄어든 가운데 증권사 신용공여액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 증가폭이 확대된 영향이다.

판매신용은 증가폭이 줄었다. 1분기 말 판매신용 잔액은 127조 3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조 1000억원 증가했다. 신용카드 이용 규모 확대 등으로 증가세는 이어졌지만, 지난해 4분기 증가폭 3조원보다는 축소됐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



met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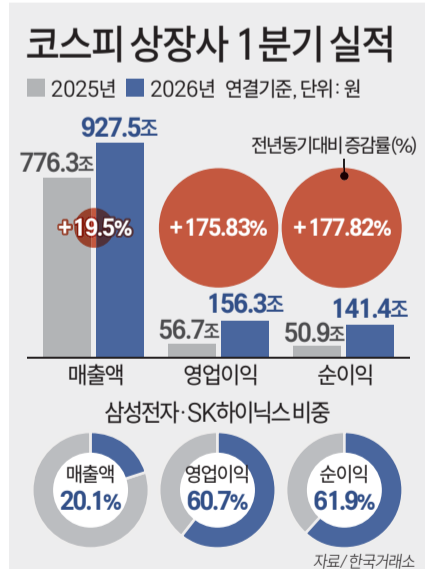
## ‘삼전닉스’ 효과... 상장사 영업이익 176% ↑

코스피 상장사 1분기 결산 반도체 슈퍼사이클 영향 실적 개선 삼전·하닉 제외 영업이익 44% 늘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들의 올해 1분기(1~3월)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78% 증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과 매출도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176%, 19% 쯤 늘었다.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 영향으로 기업 실적이 개선됐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비반도체, 비제조업의 실적은 부진한 ‘K지형’ 성장장이 더 고착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이하 연결 기준, 639사)의 올해 1분기(1~3월) 결산실적을 종합한 결과, 매출액은 927조 54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49% 증가했다. <관련기사 4면>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175.83%, 177.82% 증가한 156조 3194억원, 141조 4436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액 대비 영업



이익률(16.85%), 순이익률(15.25%)도 각각 9.55%포인트, 8.69%포인트 개선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기업이 사실상 통계를 좌우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합산 매출액(연결 기준 186조 4500억원)이 전체에서 20.10%를 차지했다. 두 회사의 합산 영업이익(94조 8400억

원)과 순이익(87조 5700억원)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0.7%와 61.9%로 집계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07% 늘었다. 영업이익은 44.49%, 순이익은 55.79% 증가했다. 영업이익만 놓고 봤을 때 전자·전자 업종이 491.75% 증가하며 전체 영업이익의 규모를 불린 것은 맞지만, 비금속(+157.73%), 의료·정밀기기(+126.27%), 일반서비스(+140.87%), 화학(+113.30%)도 각각 세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전체 15개 업종 가운데 15개 업종의 영업이익이 증가했고, 5개 업종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3월 말 기준 부채비율은 108.74%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대비 1.64%포인트 줄었다. 연결재무제표 기준 분석대상 639사 중 순이익 기준 흑자 기업은 504사로 전년 동기 대비 23사가 늘었다.

/신하은 기자 godhe@



metro

### 메트로 한줄뉴스



- ▲ 與박주민 “철근 누락 뉴스 보고 알았다는 오세훈…뉴스로 안전점검 할 건가” /사진 뉴시스
- ▲ ‘5·18 민주화운동 진압’ 유공 육군참모총장 표창 33건 취소

- ▲ “2030년 재생e 100GW 조기달성”…정부, 에너지 대전환 세부전략 발표
- ▲ 민주당 대선 지선 출마자 전원, 현충원 찾아 필승 결의

- ▲ 한동훈 “사람, 돈 모이는 도시 부산 복구” K아레나 조성
- ▲ 국방차관 “예비군훈련장에 지상정찰로봇 등 첨단 무기체계 지원”

# “언제든 배송해드립니다”… 퀵커머스 ‘24시간’ 경쟁 본격화

장보기 등 소비자 일상 수요 증가  
플랫폼-유통강자 합종연횡 활발  
오프라인 매장, 도심형 물류거점 전환

유통업계의 퀵커머스 경쟁이 한층 가속화되고 있다. 편의점과 대형마트, 생활용품점까지 배달 플랫폼과 손잡고 심야 배송과 즉시배송 권역 확대에 나서면서 오프라인 매장이 도심형 물류거점(MFC)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모습이다.

19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주요 유통-플랫폼 기업들은 24시간 배달 서비스 확대와 도심형 물류망 구축에 속도를 내며 소비자의 일상 장보기 수요 선점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쿠팡이츠는 이날부터 전국 주요 광역시에 24시간 배달 서비스를 전격 도입했다. 그동안 쿠팡이츠는 자체 라이더 중심 구조로 새벽 3시 이후 서비스 제공이 제한적이었다. 쿠팡이츠의 서비스 확대에 편의점



GS25의 퀵커머스 주문 상품을 전문 배달원이 전달받고 있다.

/GS리테일

업계도 동참했다. CU와 GS25는 쿠팡이츠와 손잡고 각각 전국 7500여 점포와 수도권 등 주요 1000여 점포에서 24시간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 CU와 GS25는 모두 심야 시간대(밤 10시~새벽 3시) 배달 매출이 크게 신장한 이력이 있다. CU는 올해 전년 동기 대비 86.%, GS25는 전년

사이 42.7% 신장했다.

플랫폼과 전통 유통 강자 간의 합종연횡도 활발하다. 이마트의 노브랜드는 배달의민족과 손을 잡고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에서 한 시간 내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마트는 대형마트 이마트 외에도 이마트에브리데이, 이마트24모두매인에

입점했다.

다이소 또한 최근 ‘오늘배송’ 권역을 강남3구에서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으로 확대하며 정식 서비스로 전환했다. 무게 한도도 기존 5kg에서 10kg으로 늘렸다. 업계는 전국 1600여 개 오프라인 다이소 매장이 사실상 도심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MFC)로 기능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켈리는 마이크로풀필먼트 센터인 ‘컬리나우’ 서초점을 추가하며 강남권 퀵커머스를 강화했고, SSG닷컴 역시 퀵커머스 서비스 ‘바로퀵’의 물류 거점을 전국 80곳에서 오는 6월까지 최대 90개로 늘릴 계획이다.

퀵커머스는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중 등장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 중이다.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전 세계 퀵커머스 시장 규모는 2025년 1845억 5000만 달러(약 254조 7000억 원)였으며, 2026년 1999억 2000만 달러(약 275조 9000억 원)에서 2034년 3853억 6000만 달러(약 531조 8000억 원)로 성장

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측 기간 동안 연평균 8.5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퀵커머스 소비 패턴은 소량 장보기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SSG닷컴의 바로퀵 주문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4월 애호박, 대파, 두부 등 소용량 식재료가 바로퀵 주문 상위권을 차지했다. 필요한 식재료만 가까운 매장에서 바로 받아 집밥을 준비하는 소비자가 늘어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빠른 배송 경험이 누적되면서 소비자들이 이제는 단순한 간식거리를 넘어 오늘 저녁 식탁에 올릴 신선식품까지 퀵커머스로 해결하기 시작했다”라며 “플랫폼 간의 24시간 배송 경쟁이나 오프라인 매장의 거점화 역시 소비자의 하루 전체 동선 안에서 가장 자주 선택받는 채널이 되기 위한 생존 전략”이라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metro

## 韓日, 에너지분야 협력 강화 李 “양국 관계 새로운 지평”

### 한일 정상회담

중동발 에너지 위기 대응 등 논의  
李 대통령, ‘평화의 한반도’ 입장 설명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자신의 고향인 경북 안동을 방문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와 만나 정상회담을 가졌다.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가진 양국 정상은 최근 중동 정세로 인한 공급망과 에너지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안동 시내의 한 호텔에 다카이치 총리가 도착하자 입구로 직접 나가 영접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도 지난 1월 이 대통령이 자신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을 방문했을 때 정상수소 입구에 직접 마중을 나와 환대했었다.

이날 다카이치 총리가 안동을 방문하면서 한일 정상의 고향 상호방문이 이뤄졌다. 이날 정상회담이 열리는 호텔 앞에는 전통 의상대와 취타대, 가수대가 배치되는 등 국민급 의전이 제공됐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소인수회담에 이어 확대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국 정상은 그간의 서훈외교를 통해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서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확대회담에서 중동 상황과 관련된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를 위해 우리 두 나라는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이니셔티브와 국제사회의 각종 결의 등에 함께 참여했다”고 언급했다.

회담이 끝난 후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이제 한일관계는 수도를 넘어 지역 구석구석으로 확장되며 새로운 지평을 맞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최근 중동 상황에서 비롯된 공급망과 에너지 시장의 불

안정성에 대해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데 공감했다. 또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돼야 한다는 점에도 뜻을 같이했다.

이에 양국은 이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난 3월 체결된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의 성과를 평가하고, 공급망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양국은 핵심 에너지원인 LNG 및 원유 분야의 협력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3월 체결된 ‘LNG 수급협력협약서’를 바탕으로 양국 간 LNG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원유 수급 및 비축과 관련한 정보공유와 소통 채널 또한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에서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한미일 협력의 중요성도 재확인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가 최초로 차관급으로 격상돼 개최된 것을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했다.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성장하는 ‘싸움 필요가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구축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외에도 양국의 다양한 실질 협력 방안들이 각급에서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진전되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미래지향적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양국이 가진 각자의 강점을 바탕으로 호혜적이고 전략적인 협력 기반을 강화한다면 양국의 기업과 국민들이 ‘글로벌 AI 기본사회’를 선도하는 주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번 회담에서 합의된 일본 조세이탈과 관련해 발췌된 유해의 DNA 감정도 곧 시작한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과거사 문제에 있어 인도주의적 사안부터 협력해 나가는 작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서예진 기자 syj@

Fighting!

**생명보험이  
100세 시대를 뛰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위기가 왔을 때 가장 빛을 발하는 금융,  
생명보험으로 준비하세요!**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종신까지 든든한 생명보험이 삶의 여유를 드립니다.  
혜택도 보장도 평생 든든한 생명보험이 함께 합니다.

# 삼성, 성과급 협상 막판 '노노갈등'... 배분안 두고 내부반발

부문·사업부 배분 놓고 이견 지속 DS 중심 협상에 MX·DX 반발 확산 내일 총파업 앞두고 긴장 고조 DX 조합원, 교섭 중단 가져분 제출 "사업부 갈등 땀 협업 차질 우려"



삼성전자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조합원들이 지난 4월 23일 오후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앞에서 열린 투쟁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차현정 기자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부문·사업부 배분 비율을 두고 막판 협상을 진행중인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내부 직원들 사이의 '노노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가 반도체(DS) 부문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불만이 제기되면서 모바일경험(MX) 부문 직원들의 박탈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21일 총파업을 앞두고 노사간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지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차 사후교섭에서도 부문 공통 재원과 사업부 자원 분배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초기업노조 지도부는 영업 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하면서 이를 부문 70%, 사업부 30% 비중으로 할당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모리 사업부가 벌어들인 이익을 시

스템LSI(반도체 설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와 함께 나누는 구조다. 이 같은 방식으로 성과급을 나누면 적자 사업부인 시스템LSI와 파운드리 소속 직원들도 최소 3억 원 이상의 성과급을 챙겨갈 수 있다. 반면 사측은 '성과에 따른 분배'라는 성과급의 대원칙에 어긋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같은 구조를 메모리 사업부 직원들이 받아들이는 이유는 노조의 협상력 유지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체 노조 구성원의 80%가 DS 부문 소속인 초기업노조는 삼성전자 창사 이래 최초이자 유일한 과반노조다. 초기업노조가

7만명이 넘는 조합원을 확보하는데는 시스템LSI, 파운드리 소속 직원들의 참여가 뒷받침했다.

만약 노조가 사측과 협상에서 성과에 따른 분배 원칙을 받아들일 경우 시스템LSI와 파운드리 직원들의 성과급은 크게 줄어든다.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기 위해서는 비메모리 부서 직원들의 참여

가 필요하다.

하지만 노조가 수익성이 낮은 비메모리 부서를 챙기면서 갈등은 증폭되는 분위기다. 지금의 반도체 사업을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준 모바일 사업부와 지금의 삼성전자가 있게 한 TV·가전 사업부 등 DX 부문이 소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의 주장대로 부문 70%, 사업부 30%의 분배 방식을 적용할 경우 시스템LSI, 파운드리 사업부 직원들은 수익원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반면 MX와 DX 사업부는 초라한 성과급을 받게 된다.

이 와중에 최승호 위원장은 이번 협상 테이블에 DX 부문은 제외시켰고, DX 부문 직원들에 대한 비하 발언까지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DX 부문에는 '갤럭시 S26'을 앞세워 실적을 이끄는 MX(모바일경험)사업부를 비롯해 TV·가전 사업부 등이 포진해 있다. 삼성전자의 간판 사업부들로 안정적이면서도 지속

적인 이익을 달성하며 글로벌 1위의 위상을 있게 한 든든한 인프라같은 조직들이다.

지난 18일 DX 부문 조합원들이 모여 DS 부문 위주인 초기업노조의 임금교섭을 중단시켜 달라는 가져분을 법원에 제출했다. 성과급 분배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번진 것이다. 결국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분배 원칙은 삼성의 분열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성과급 논란이 단순한 보상 문제를 넘어 삼성전자 내부 인력 이동과 조직 문화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고성과 사업부로 인재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경우 사업부 간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사업부 간의 갈등이 깊어질 경우 향후 전사적 융복합 프로젝트나 협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양성운·차현정 기자

ysw@metroseoul.co.kr



## 메모리값 급등에 스마트폰 양극화 삼성·애플 버티고 中업체 '흔들'

메모리 비중, 원가 30~40%로 상승 글로벌 생산량 두 자릿수 감소 전망 폴더블 신제품 가격 인상 압박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칩플레이션' 현상이 심화하면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프리미엄 스마트폰 중심의 제품 전략과 재무 여력을 바탕으로 비용 상승 부담을 일정 부분 감내하는 반면 보급형 제품 의존도가 높은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은 생산량 조정 압박이 커지는 모습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올해 글로벌 스마트폰 생산량이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통상 스마트폰 부품 원가에서 10~15% 수준을 차지하던 메모리 비중이 올 1분기 들어 30~40%까지 치솟은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와 애플 역시 메모리 가격 급등에 따른 원가 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오는 7월 공개 예정인 갤럭시 Z 폴드8/Z 플립8 역시 가격 인상 압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싣고 있다. 지난해 갤럭시 Z 폴드7 256GB 모델 기준 약 23만원이었던 Z 폴드8은 부품값을 고려해 수십만 원 가량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거론된다.

애플 역시 프리미엄 폼팩터인 폴더블 폰 신제품을 당초 기대보다 높은 가격대를 형성할 것이라는 의견이 따른다. IT 매체 맥루머스는 오는 9월 출시 예정인 폴더블 아이폰은 256GB 모델이 약 346만원, 512GB 모델 약 390만원, 1TB 모델 약

433만원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은 원가 부담 속에서 삼성전자는 갤럭시S27 기본 모델의 OLED 패널 공급처로 중국 BOE를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위 모델인 '울트라'에는 삼성디스플레이의 차세대 패널을 독점 공급받아 압도적인 기술 격차를 유지하는 동시에 기본 모델은 원가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전략이다.

애플도 메모리 가격 상승 부담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팀 쿡 애플 CEO는 회계연도 2026년 2분기 실적 설명회에서 "3분기에는 메모리 비용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나 이 역시 일부 재고 효과로 부분 상쇄될 것"이라며 비용 상승을 고려해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삼성전자와 애플은 프리미엄 스마트폰 중심의 제품 전략과 안정적인 재무 여력을 바탕으로 메모리 가격 상승 부담을 일정 부분 흡수하거나 제품 가격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대응력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가성비 전략을 앞세워 성장해 온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은 원가 부담 확대에 현금 흐름 유지를 위해 생산량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실제 샤오미는 지난해 연간 스마트폰 출하량 1억6520만대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중국 패널 업체들의 하락세도 두드러진 모습이다.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의 스마트폰용 OLED 패널 출하량 합산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7% 감소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교보생명의 이웃사랑 이야기 '황제펭귄' 편

## 생명보험은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사랑입니다

매서운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서로를 떠안고 위치를 바꿔가며 체온을 유지하는 황제펭귄의 허들링처럼

생명보험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어려움을 이웃과 함께 이겨내는 따뜻한 이웃사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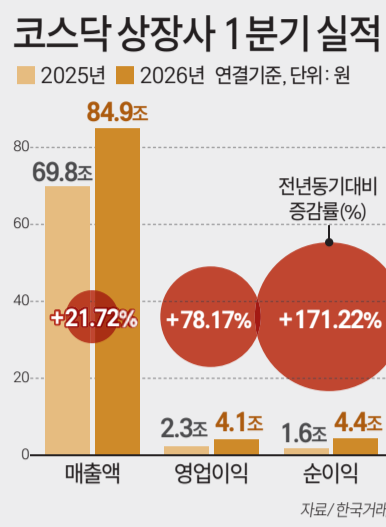
KYOBO 교보생명

# 반도체가 이끈 실적... K자형 '뚜렷'

# 은행, '기술금융' 7.3조 늘어 미래성장산업 자금공급 강화

## 상장사 1분기 결산

코스피 흑자기업 504社... 23곳 ↑  
전기·전자, 의료·정밀기기 성장  
코스닥, 영업이익 78.17% 늘어  
2분기, 반도체 중심 실적개선 전망



국내 주요 상장사들이 1분기 'A'학점의 영업성적표를 받아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역대 최대 실적을 바탕으로 전체 수치를 끌어올린 것이다. 두 기업은 전체 상장사 합산 영업이익 가운데 60% 이상을 차지했다. 실적은 'K자형'을 보였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뺀 나머지 코스피 상장사의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해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2분기에도 국내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겠으나 반도체를 제외한 업종의 실적은 1분기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면서 차별화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반도체 독주·양극화 여전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 중 흑자기업은 504개사(78.87%)로 전년 동기(481사, 75.27%) 대비 23개사가 늘었다. 작년 동기 대비 흑자가 지속된 기업이 438사, 흑자전환한 기업이 10.33%였다. 적자기업은 135사(21.13%)로 92개사에서 적자가 지속됐고 43개사가 적자전환했다.

업종별로는 개별기준 20개 업종 중 15개에서 매출이 증가했으며, 전기·전자(매출 +81.38%, 순이익 +457.07%)와 의료·정밀기기(매출 +24.80%, 순이익 +159.02%)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반면, 건설(매출 -10.53%, 순이익 +125.97%), 화학(매출 -4.4%, 순이익 -

21.2%), 전기·가스(매출 -3.56%, 순이익 10.37%), 부동산(매출 -37.5%, 순이익 적자전환), 종이·목재(매출 -3.28%, 순이익 적자전환) 등은 매출액이 감소했다.

금융업은 연결기준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0.51%와 28.82% 급증했다. 특히 증권업은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141.19%와 139.33%씩 늘며 세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코스닥 기업들도 비교적 무난한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12월 결산법인 1273개 코스닥 기업의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8.17% 늘어난 4조 1284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액은 84조 9461억원, 순이익은 4조 4342억원으로 각각 21.72%, 171.22% 늘어났다.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은 각각 4.86%, 5.22%로 전년 동기 대비 1.54%포인트, 2.88%포인트 상승했다.

개별 기준으로 봐도 1595개 코스닥 시장 상장사의 영업이익은 2조 6639억원으로 26.92% 개선됐다. 매출액과 순이익은 각각 48조 7073억원, 4조 3145억원으로 8.49%, 119.50%씩 증가했다.

연결 기준으로 12월 결산 법인의 지난

3월 말 기준 부채비율은 122.03%로 전년 말 대비 9.23%포인트 늘었다.

분석 대상 1천273개 기업 중 흑자를 낸 곳은 752개사(59.07%), 적자를 기록한 곳은 521개사(40.93%)였다. 흑자 기업 중 187개사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고 565개사의 경우 흑자를 지속했다. 적자기업 가운데서는 120개사가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됐고 401개사는 적자를 이어갔다

### ◆"2분기에도 반도체 중심 개선세 지속"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5월 초 올해 반도체와 코스피 영업이익은 각각 580조원, 867조원으로 전쟁 후 더 빠르게 상향됐다"며 "그러나 반도체 제외 업종은 코스피 대비 부진한 상태고, 반도체 영업이익 비중은 코스피 전체의 60% 후반까지 상승하며 쏠림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가에서는 2분기에도 반도체 독주 속에 코스피 상장사 실적개선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성노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에너지프리미엄 비율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개선이 전체 기업 실적을 대폭 끌어올렸다"고 말했다. 그는 "1분기 반도체 가격상승에 힘입어 코스피 제조업 매출액성장률이 전년 대비 19.8% 높아졌고, 4월에도 한국수출금액이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매출성장률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올해 2분기에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실적개선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다만, 반도체를 제외한 업종들의 실적은 1분기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차별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잔액기준, 35개월 만에 최고치  
부동산 중심서 '생산적 금융' 전환  
RWA 가치치 조정... 신규대출 확대

올해 들어 은행권의 기술금융이 7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중심에서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기술 중심의 기업에 대한 대출이 급증세를 보인 영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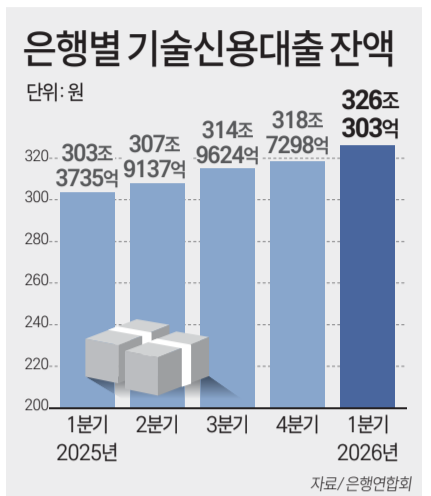
1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기술신용대출 잔액은 326조 30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318조 7298억원)과 비교하면 3개월 새 7조 3005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올해 1분기에는 지난해 1년간 늘어난 16조 4350억원의 절반수준에 달했다.

잔액기준으로 보면 2023년 4월(327조 4149억원) 이후 35개월 만에 최고치다. 지난해 7월 300조원 대에 머물던 잔액은 8월 들어 311조 936억원으로 310조원대까지 늘어난 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기술신용대출은 기술은 있으나 담보가 없는 기술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은행권이 내주는 대출을 말한다. 각 은행은 기술 신용평가(TCB)를 바탕으로 기업에 신용대출을 내준다.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중심 금융에서 벗어나 첨단산업과 혁신기업 지원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면서 은행권 역시 기술금융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은 반도체·인공지능(AI)·바이오 등 미래 성장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강화하고, 기술력 중심의 여신 관행을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기술신용대출 건수도 70만건을 넘었다. 지난 3월 말 기준 대출 건수는 70만 5622건으로 지난해 말(70만 741건)과 비교해 4881건 증가했다.



은행별로 보면 3월 말 기준 ▲IBK기업은행 133조 9493억원(27만 6415건) ▲신한은행 44조 6517억원(8만 2062건) ▲하나은행 35조 2553억원(7만 4536건) ▲우리은행 32조 3378억원(4만 5404건) ▲국민은행 31조 1324억원(7만 1522건) 순으로 많았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위험가중자산(RWA) 가치치 조정 등에 따라 신규 기업대출 비중을 늘리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국내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 상향조정했다. 자금의 부동산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벤처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지난달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기업대출 잔액은 직전월 대비 6조 2908억원 늘었다. 대기업대출 3조 8900억원, 중소기업(개인사업자포함) 2조 4008억원 등 모두 늘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증가폭은 1조 5669억원 늘어나는데 그친 것과 대비된다. 주담대의 증가 규모도 1조 9104억원으로 1조원대에 머물렀다.

/나유리 기자 yul115@



metro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그 이름만으로도 품질을 인정받는

## 安心 0%염산염 고춧가루 100%

고객센터 건고추 전화

☎ 054-683-2286

고객센터 고춧가루 전화

☎ 054-682-2004

고객센터 팩스

**농협**

351-0717-6550-53

예금주: 영양농협 가공사업소 (고춧가루 주문시)

## “코리아 프리미엄 현실화... 투자 골든타임”

구윤철 부총리, 英 런던서  
‘대한민국 투자설명회’ 행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사진)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옛말이라고 했다. 그는 영국 런던에서 이른바 ‘대한민국 IR(투자설명회)’ 행사를 갖고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했다.

1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18일(현지시간) 런던 주영국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한국 경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지난 3월 일본 도쿄, 4월 미국 뉴욕에 이은 부총리 주관의 국가 투자설명회다.

구 부총리는 “한국이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이익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특례 도입 등 투자자 친화적인 세제 개편을 단행했다”고 했다.

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과거의 단어라며 “코리아 프리미엄이 새로운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지금이 한국 투자의 골든타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AI 대전환” 시대에 ▲핵심 공급망 분야에서의 전략적 위치 선점 ▲외환·자본시장 전반의 개혁 가속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의 비전

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고대역폭 메모리(HBM), 2차전지, 전력반도체, 센서 등 퍼지컬 AI 구현에 필수적인 공급망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을 갖춘 핵심 국가’라고 했다. 또 “우수한 IT 인프라와 디지털 활용 역량을 바탕으로 모든 산업 분야에 AI 접목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적 경쟁력과 자본시장 개혁이 결합돼, 새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 지수가 170% 이상 상승한 상황도 전했다. 또 한국 증시 시가총액이 6단계 상승해 전세계 7위 규모에 도달했고, 한국 국채가 세계 국채지수(WGBI)에 편입돼 약 109억 달러의 신규 자금이 유입됐다고도 했다.

한 참석자는 중동 사태 등에 따른 한국 정부의 대응책을 물었다. 이에 구 부총리는 “한국 정부가 중동 상황 등에 대한 단거기적 공급망 대응을 넘어 국내 생산기반 확충, 비축확대, 해외 생산능력 구축, 수입다변화 등 근본적 공급망 구조개선방향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 문화강국의 내일은 지금 박물관에서 자라는 중

과거의 아름다움부터  
기대되는 미래까지  
그려보고 상상하는 곳

박물관은 아이들에게  
세상을 배우고 문화를 경험하는  
첫 번째 순간이 되기에

KB는 더 많은 아이들이  
이 소중한 시작을 만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곳곳의 박물관 무료 관람을 지원합니다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미래,  
지금 박물관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Korea Better  
KB금융그룹

5월 18일은 '국제 박물관의 날'입니다



KB금융그룹과 함께하는  
**전국 공립 박물관·미술관  
무료 관람 프로젝트**

**신청 경로** KB스타뱅킹 ▶ 국민지갑 ▶ 일상 속 편의 ▶ 박물관/미술관 무료 관람

전 국민 누구나 쉽게 문화예술을 접하고 풍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KB금융그룹이 무료 전시 관람과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신청 바로 가기



**\* KB금융그룹**

# 민주 “강릉~목포 4시간 시대”... 강호축 철도망 구축 약속

“예산 확보, 민주당이 책임질 것  
유라시아 대륙철도 연결 기대”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등 선행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강원도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시)를 잇는 ‘강호축 철도망’ 구축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2030년을 목표로 강릉에서 목포까지 약 4시간안에 도달할 수 있는 고속철도망을 놓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인사와 이상호 강원지사 후보, 신용한 충북지사 후보, 민형배 전남시장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강호축 철도망 합동 공약 발표회’를 열었다.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강호축 철도망 구축은) 강릉에서 목포까지 시속 200km 이상으로 (열차를 운행해) 기존에 9시간 걸리던 것을 절반 이하인 4시간 정도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한 야심 찬 공약”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강호축이 계획대로 구축되면 전국도 구석구석 닿는 대한민국, 더 빠르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강원과 호남, 충청을 잇는 ‘강호축 철도망 합동 공약 발표회’에서 후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용한 충북도지사 후보, 이상호 강원도지사 후보, 정 대표,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뉴스시스

편리한 대한민국, 더 많이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남북 관계가 획기적으로 좋아져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만개하는 미래를 생각하면 강호축 철도망이 유라시아 대륙철도

를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은 더 실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며 “약속이 실제로 실현되는 것이 중요인데,

그것은 집권여당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강호축이란 말은 (뒤집으면) ‘축 호강’이라며 (강호축 철도망은)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어르신 호강을 시키는 길”이라고 했다.

다만 “문제는 예산”이라며 “이 예산은 책임지고 더불어민주당이 (확보를) 하겠다는 굳은 말씀을 드린다”고 약속했다.

이상호 강원지사 후보는 “(강호축 철도망이 완성되면) 강원 원주시는 정말 교통의 요지가 돼 물류 등의 중심지가 될 수 있고 강릉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신용한 충북지사 후보는 “강호축은 국토의 ‘X’ 축인 오송을 지나 청주공항과 제천, 원주를 넘어가는 교통축 (구축을) 통해 청주공항의 활성화,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과 맞물릴 것”이라며 “남북 관계 개선에 따라서 시베리아까지 연결되는 중심축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형배 전남시장 후보는 “목포에서 광주송정역으로, 강릉까지 한 번에 연결되는 고속철도가 달리기 시작하면 거대한

교류의 장이 열리고 국토와 국민통합 시대 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사람이 오가며 관계가 생기고 물류가 흐르고 산업이 움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관광이 살아나고 시장이 넓어지는 선순환도 시킬 것”이라고 보았다.

한정에 정청래의장은 이날 공약 검토 경과를 보고하며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충북선 고속화 공사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저희당은 내년 기본·실시설계를 한 뒤 착공 설계에 들어갈 것”이라며 “아무리 늦어도 2031년 개통과 준공을 목표로 하고 더 당길 수 있다면 청주공항 복선전철이 개통되는 2030년에 맞추려고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이울러 “저희가 생각하는 바대로 추진될 경우 2030년 또는 2031년에 KTX-이음을 이용해 목포에서 강릉까지 환승 없이 4시간 주파가 가능하다. 목포역에서 광주송정역까지 고속화 작업이 끝난다면 (운행 소요 시간을) 더 당길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박경수 인턴기자

gws0325@metroseoul.co.kr



metro

## 與 ‘오뚝유세단’ 출정... “전국 누빈다”

6·3지선 경선 탈락 후보들로 구성  
오뚝이 정신 내세워 선거운동 지원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오뚝유세단(단장 박주민 의원)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출정식을 열었다. 오뚝유세단은 6·3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탈락한 후보들로 구성됐다.

박주민 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오뚝유세단 출정식에서 “제가 지금까지 부산·대구·울산도 다녀왔고 전남의 여러 곳을 다녀왔는데 우리 민주당이 마음 놓을 곳은 없다”며 “한 걸음 한 걸음 더 뛰어야 하고 한 분 한 분 더 만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는 정말 중요하다”며 “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길이 평탄한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힘든 길

이고 험한 길”이라며 “우리가 더 열심히 뛰어야 하고 신발이 닳도록 많이 움직여야 한다. 그런 각오로 우리 오뚝유세단이 움직이겠다”고 강조했다.

오뚝유세단의 첫 유세는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1일 0시(자정) 서울에서 시작해 부산에서 마무리한다. 박 단장은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새벽시장 시민들을 만나며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를 돕는, 서울시장을 만드는 선거운동을 펼칠 예정”이라며 “같은 날 오후에 바로 부산으로 내려가 부산에서 밤늦게까지, (오뚝유세단 일원인) 김영배 의원의 각오로 자정까지 해보자고 하셔서 자정까지 한번 (선거운동을) 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2일 창원·울산, 23일 전북 등 전국을 순회하며 선거일까지 격전지와 당세 취약지를 중심으로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서예진 기자 syj@

## 여야, 삼성전자 노사 갈등 중재 압박

평택캠퍼스 찾아 간담회 열어  
野 양향자,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예고일(21일)을 앞두고 정부 중재로 노사가 타협점을 찾고 있는 가운데, 19일 여야 정치권 인사들의 삼성전자 사업장 방문이 줄을 이었다.

우선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는 전날(18일)부터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노사 대타협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양 후보의 단식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오전 9시 40분께에는 양 후보의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김문수 전 대선 후보도 단식현장을 찾았다.

장 대표는 “양향자 후보처럼 평생 반도체 산업 현장을 지켜온 사람이 가장 절박하게 현장을 지키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무책임하게 통과시켜놓고 지금 아무런 해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이 만든 문제를 책임 있게 직접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양 후보는 장 대표에게 “한 번 생산라인이 흔들리면 글로벌 신뢰와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이 사태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는 단순한 기업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와 안보의 핵심 산업”이라며 “오늘은 선거보다 대한민국 산업과 미래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울러 이날 오전 10시30분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유의동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오전 경기 평택시 고덕동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삼성전자 노사 대타협 촉구 단식 농성 중인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를 찾아 대화하고 있다. /뉴스시스

국민의힘 후보가 평택캠퍼스를 방문, 현장을 돌아본 뒤 회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같은 선거구의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이날 오후 1시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노사 상생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서예진 기자·김보민 인턴기자

## “전제기능 회복... 성동구의회 수준 높일 것”

6.3 지방선거  
청년 출마자를 만나다

② 박함윗  
국민의힘 성동구의원 후보

진로 멘토링 늘려 교육 불안 해소  
공공 교육 지원 확대 등 제시

박함윗 국민의힘 성동구의원 후보(서울 성동구 나선거구 2-가번·1993년생)는 국토교통부 2기 청년보좌역 출신이다. 박 후보는 자신이 고안한 ‘찾아가는 주거상담소’로 전국을 누비며 시민들의 주거 고민을 듣고 대안을 제시하는 일을 마련했다.

박 후보는 성동구의 청년 단체인 ‘성동청년비전포럼’을 조직하고 운영하며 청년과 정치·정책 사이 가교를 놓았고, 이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성동구 최연소 구의원 출마자로 공천받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박함윗 후보는 최근 성동구의회가 민주당 우위로 국민의힘의 ‘전제 기능’이 상실됐다고 판단했다. 그는 “제1의 목표는 성동구의회의 수준을 압도적으로 높이는 것”이라며 “행정이 지역 현장을 무시하고 독주할 때, 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보루가 바로 기초의회이기 때문”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특히 민주당의 오랜 독주로 인해 경제 기능이 마비된 성동의 정치를 바로잡겠다”며 “구의회 본연의 비판적 기능을 회복시켜, 행정의 품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자신했다.

박 후보가 출마한 지역구는 왕십리1동, 왕십리2동, 행당1·2동을 관할하는 전통적인 성동구의 중심지다. 박 후보는 정부와 청년단체 활동으로 키워낸 실무역량과 공감능력으로 주민들의 거대한 곳을 정확히 읽어주겠다고 했다.

그는 “제 지역구는 왕십리역을 중심으로 거대한 유동인구가 흐르고, 인구 조화가 뚜렷한 주거 단지가 밀집해 있어 성동

박함윗 후보 프로필  
서울 성동구 나선거구 2-가번·1993년생  
현)성동청년비전포럼 대표  
현)국민의힘 서울특별시

시당 중구성동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전)국토교통부 장관실 청년보좌역  
전)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평가위원회 선정위원  
전)한국정책학회 청년정책연구회 이사

나에게 지방선거란? ‘실력의 증명’이다.

의 역동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라며 “하지만 그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도 고차원적이다. 중·고등학교를 둘러싼 교육 및 학군 문제, 왕십리역 복합개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지하화 이슈, 꿈틀거리는 재개발·재건축 이슈 등은 단순한 민원 해결을 넘어선 고도의 정책적 이해도가 필요한 사안들”이라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당선 후 지역의 최대 관심사인 교육과 입시를 위해 구청 직영의 입시 진학 상담 및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왕십리와 행당 지역은 중·고교 진학 시점에 체계적인 입시 정보가 부족하다는 불안감 때문에 대차동 등 교육 특구로 이동하는 가구가 많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단순히 행정 인력을 배치하는 차원이 아니라, 현장에서 검증된 전문가 그룹을 초빙하여 맞춤형 진학 상담 및 진로 멘토링을 상설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급 입시 정보를 공공 영역에서 선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학부모님들의 정보 갈등을 해소하고, 우리 동네 안에서 최적의 진학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유아 및 초등 학부모를 위한 진로·AI 교육 등의 정기 강연을 병행하여 아이가 어릴 때부터 장기적인 교육 로드맵을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공언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 여기, 새로운 그라운드가 있습니다

낮선 땅 위에서도  
두려움보다 설렘이 앞서는 건,  
긴 시간 다져온 본질의 단단함이  
성장으로 이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2026, 새롭게 도약하는 KT는  
국민 모두의 일상이 명장면으로 채워지도록  
힘껏 뛰겠습니다

AX Platform Company KT



# 자산 인출시 투자용 보다 예·적금 우선... 연금 해지 최후수단

## 주식 전성시대와 재테크

### ⑤ 은퇴 이후 자산전략 <끝>

‘100세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노년기의 자산 전략도 중요해졌다. 은퇴 이후 30년에 달하는 노후 생활을 위해서다.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가구의 자산 규모는 평균 6억원이다. 가구주가 39세 이하인 가구의 3억1500만원과 비교했을 때 약 2배 수준이다. 그러나 가구주 60세 이상 가구는 자산의 81.3%가 부동산을 비롯한 ‘실물자산’에 편중됐고, 유동화가 가능한 ‘금융자산’은 1억1000만원에 불과했다. 가구주가 39세 이하인 가구의 금융자산 평균인 1억3000만원보다 낮다.

#### ◆ ‘월 소득’ 재점검... ‘인출전략’ 중요

‘자산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월 소득을 점검해야 한다. 자신과 배우자가 생활수준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월 생활비를 계산하고, 연금 지급액 및 배당주에 금 등 수익성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비교해 부족분을 확인해야 한다.

자산을 인출하는 데에도 순서가 있다. 예·적금 등 일반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먼저 인출하고, 그 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비롯한 투자용 계좌에서 인출하는 것이 좋다. 연간 1500만원이 넘

<증여 시 증여세 면제 한도와 유의사항>

	배우자	자녀	손주
증여	10년에 5억원	미성년자 10년 2000만원, 성인 10년 5000만원	
결혼		혼인신고 시 2년 이내 1억원(제한 가능)	
출산		자녀 출산 시 2년 이내 1억원(자녀 1인당)	
비고		부부가 자녀·손주 증여 시 합산해서 계산(이혼 시 각각 증여 가능)	

\*사망 시 자녀와 배우자는 10년 이내, 손주는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에 합산  
-10년 이상 기간을 두고 10년마다 증여해야 상속세 최소화

### 5060세대 국민연금 수익비 2~3배 보험료 납입 통해 연금소득 극대화 고위험자산-중위험·안전자산 재편 상속세 아끼려면 ‘생전증여’도 방법

는 금융소득에는 금융소득세가 부과되는 만큼, 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자산을 먼저 소진하는 것이 유리하다. 반면, 개인형 IRP나 연금저축 등 ‘연금 계좌’의 해지는 최대한 미뤄야 한다.

50대·60대의 경우 국민연금의 수익비(년 단과비교해 받는 금액·25년 기준)가 2~3배에 달하는 만큼, 보험료 납입을 통해 매달 받는 연금 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다.

불필요한 보험 비용을 줄이는 ‘보험 다이어트’도 중요하다. 의료보험은 실손이나 3대 질병(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 중심으로 남기고,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특

약은 삭제하는 것이 좋다. 특히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종신보험에 가입했다면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활용해 사망보험금을 금융자산으로 전환해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만 하다.

#### ◆ ‘자산증식’보다 ‘가치보전’

자산의 위험도를 재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 은퇴 이후에는 적극적인 재테크를 통한 ‘자산증식’보다는 기존 자산의 가치를 보전하고 자산 소모도 최소화해야 한다. 근로소득이 사라지고 연금소득이나 금융자산 소득으로 주 수입원이 이동하는 만큼, 질병이나 재해 등 갑작스러운 지출에 취약해질 수 있어서다.

은퇴 이전에 고위험자산 위주로 자산을 편성했다면 중위험자산과 안전자산에 나눠 투자하는 투자 포트폴리오 재편이 필요하다. 주식이나 펀드는 주가 상승에 집중한 ‘성장형’보다는 가격 변동이 안정적이고 배당률이 높은 ‘배당형’을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 좋으며,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원금을 보장하는 은행 예·적금이나 국채 등에도 자산 일부를 분배해야 한다.

부동산을 보유했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이나 은행권의 역(逆)모기 지형 상품을 고려할 수 있다.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도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매달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생존 기간이 길어지거나 주택가격 하락 등을 이유로 연금 지급액이 가입 당시의 주택가격을 넘기게 되더라도 연금을 계속 지급한다.

#### ◆ 잘 물려주려면... ‘생전 증여’ 활용

자녀 세대에게 더 많은 자산을 남겨주기 위한 상속 전략도 중요하다. 특히 사망으로 상속이 발생할 경우 재산 규모에 비해 상속세가 발생하는 만큼, 생전에 세금을 면제해 주는 각종 제도를 활용해 시로 자산을 이전해야 한다.

2026년 기준 한국의 최고 상속세율은 50%다. 상속세는 누진 형태로 적용되고, 자녀나 배우자에 공제를 제공해 자산 10억원 구간까지는 상속세가 거의 없다.

반면 재산이 많다면 상속세도 빠르게 늘어간다. 상속 규모가 20억원이라면 배우자가 생존해도 약 2억3300만원을 상속세로 내야 하며, 50억원이라면 14억9400만원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 지난해 말 서울 아

파트 평균 가격이 15억원 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상속세는 중산층에게도 중요한 문제다. 생전에 재산을 다음 세대로 넘겨주는 ‘자산 이전’이 중요한 이유다.

자산 이전의 핵심은 ‘증여’다.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는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자녀나 배우자에게는 최근 10년을 기준으로 공제 금액이 지정된다.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원까지, 자녀에게는 10년간 5000만원(미성년은 2000만원)까지 공제 한도가 부여된다. 단, 가족 간의 공제 한도 내 증여 시에도 수증자(받는 사람)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손주세대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세대생략증여’도 가능하다. 미성년 손주에는 10년 합산 2000만원, 성인 손주에는 10년 합산 5000만원 한도로 증여세가 공제된다. 단, 증여세는 수증자 기준으로 부과된다. 이미 자녀세대가 손주세대에게 증여한 뒤라면 중복 공제는 불가하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노후가 길어진 만큼, 안정적인 노후 생활과 자산가치 보전을 위한 자산 계획이 중요해지고 있다”

라면서 “나이가 자녀나 손주 세대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기 위한 절세·상속 전략도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metro

## 매물 실종에 월세 전환... ‘전세대란’ 온다

수도권 전세가 올들어 2.06% 상승 전세수급지수 5년여 만에 최고치 3월 전월세 거래량의 69% ‘월세’



지난 18일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물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뉴스시스

전세가 가격이 들쭉이는 것은 물론 물량 자체가 부족하면서 ‘전세대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향후 전세가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전세의 월세화도 빠르게 고착화되는 분위기다.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아파트 전세가 가격지수는 연초 이후 4월까지 전국이 올해 들어 1.47%나 올랐다. 전년 동기(0.02%)와 비교하면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다.

특히 수도권 전세가 2.06% 올랐다. 상승률은 서울 2.39%, 경기 2.04%로 지난해 같은 기간 각각 0.41%, 0.17%를 크게 웃돌고 있다.

전세가 가격은 제주를 제외하고는 전국이 다 올랐다. 같은 기간 작년 마이너스(-)를 기록한 5대 광역시의 상승률도 1.16%

에 달한다.

임대물량 부족 우려로 전세수급지수는 5년여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전세수급지수는 이달 둘째주 113.7으로 지난 2021년 3월 둘째주(116.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웃돌 경우 공급 부족을 뜻한다.

KB부동산은 “절대적인 공급물량이 부족한 가운데 신규 입주물량 감소와 월세 전환 증가 등으로 전세물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며 “공급 부족이 심화하면서 전세수급지수는 수도권 뿐 아니라 비수도권도 2021년 이후 최고치다”라고 설명했다.

이제 임대차 거래는 전세보다는 월세가 압도적이다.

3월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28만건으로 전월 대비 10% 늘었다. 이 가운데 월세가 19만3000건으로 68.9%에 달했다.

누적 기준으로도 월세 거래의 비중이 68.6%로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최근 5년간 평균치인 52.7%를 크게 웃돌고 있다.

전세사가 아파트 월세를 선호했던 빌라 등 비아파트 뿐만 아니라 아파트의 월세 비중도 높아졌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아파트 월세 거래의 비중이 3개월 연속 50%를 웃돌았다. 최근 5년간 평균은 41.1%다.

월세가 가격도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4월 수도권 아파트 월세가 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서울 1.1%, 경기 0.9%, 인천 0.4% 상승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 당국, 보험대출 조인다... 계약해지 우려

보험사 10곳, 대출잔액 55조 달해 한도 축소시 급전창구 위축될 수도



Chat GPT가 생성한 보험계약대출 이미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급전을 마련할 수 있는 보험계약대출 한도가 낮아지면서 소비자 보호와 자금 유통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빚투(빚내서 투자)와 계약 해지 위험을 막기 위한 리스크 관리란 입장이지만, 업계에선 보험을 깨기 전 활용하던 완충장치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NH농협생명·신한라이프 등 생명보험사 5곳과 메리츠화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 5곳의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지난 3월 말 기준 55조497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 54조6688억원, 2월 54조8355억원에서 3월 들어 55조원을 넘어섰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을 해지할 때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상품이다. 별도 심사 절차가 까다롭지 않고, 보험계약을 유지한 상태에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 생활비나 의료비 등 단기 유동성 수요에 활용돼 왔다. 보험을 중도 해지하기 전 선택할 수 있는 계약 유지 수단인 셈이다.

최근 금융당국은 보험계약대출 증가세를 주시하고 있다. 증시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보험계약대출이 투자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고, 대출 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할 경우 계약 해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험계약대출은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하는 만큼 금융사 부실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대출이 누적될수록 보장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

당국의 리스크 관리 주문 이후 주요 보험사들은 일부 상품의 보험계약대출 최대 한도를 낮췄다. 삼성생명은 일부 상품의 보험계약대출 최대한도를 해약환급금의 95%에서 85%로 낮췄고, 현대해상도 연금·저축성 상품 등을 중심으로 같은 수준의 한도 조정에 나섰다. KB손보는 상품에 따라 한도를 10~20%포인트(p) 낮췄고 DB손보와 한화손보 등도 한도 축소를 공지했다.

문제는 보험계약대출이 빚투 수단으로만 쓰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은행권 신용대출 여력이 부족하거나 급히 생활자금이 필요한 가입자에게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수단이었다. 한도가 줄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일부 가입자는 대출 대신 중도해약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보험업계에서는 저축성보험 해약 증가가 주목받고 있다. 해약은 기존 보장 상실과 재가입 부담을 동반하는 만큼, 계약대출은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가능해 왔다. 증시 랠리와 생활자금 부담이 맞물리면서 보험계약을 깨는 수요가 늘어난 상황에서 보험계약대출 한도가 낮아지면 소비자의 선택지는 더 좁아질 수 있다.

/김주형 기자 gh471@

## KB국민카드, 해외법인 당기순익 급증

1분기 94.4억, 전년비 107억 늘어

KB국민카드 해외법인이 지난 1분기에 호실적을 기록했다. 전쟁과 무역분쟁 등 글로벌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구조 개선 노력을 이어가면서다. 해외 법인별 자산 리밸런싱과 조직·프로세스 효율화 등이 통했다는 분석이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B국민카드의 지난 1분기 해외법인 당기순익은 94억4000만원을 나타냈다. 마

이너스(-)12억6700만원이었던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1년 새 107억원가량 늘었다.

법인별로 살펴보면 캄보디아 법인 KB대한특수은행이 순이익 16억6700만원을 달성했다. 전년 동기(-15억9200만원) 대비 약 32억5900만원 순이익이 개선되며 흑자 전환했다.

태국 법인인 케이비제이(KBJ)캐피탈은 지난 1분기 당기순이익 113억2700만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71억3200만원) 대비 약 58.8% 증가했다. 인도네시아 법

인인 KB파이낸시아멀티파이낸스는 -35억5400만원 적자를 냈지만 지난해(-68억700만원)에 비해 적자 폭을 절반가량 줄였다.

캄보디아 법인의 경우 현지 자동차 금융 시장 개선세가 실적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KB대한특수은행은 글로벌 환경 악화로 인한 무역·관광 등 대외 충격 영향으로 성장률이 둔화됐으며, 무역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비우호적 영업 환경이 지속 중이다. 다만, 비우호적 환경에도 KB대한특수은행의 주요 상품과 연관된 자동차 금융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내달 운곽 韓, '빠른 전력화·운용 안정성' 장전

한화오션 중심 수주 경쟁력 강화  
獨, NATO 기반 운용체계 내세워  
"최종 결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

캐나다 해군의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이 이르면 다음 달 운곽을 드러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최종 결과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한화오션을 중심으로 한 한국 측은 이미 운용 중인 KSS-III 계열 잠수함과 빠른 건조·인도 능력, 실제 장거리 항해 실증을 앞세우고 있다. 반면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는 전통적인 잠수함 강국으로서 축적된 기술력과 NATO 기반 운용 체계를 내세우며 맞서고 있어 막판까지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다음 달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 P)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CPSP는 캐나다 해군의 노후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해 최대 12척의 차세대 재래식 잠수함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수주전이 막판으로 접어들면서 실제 운

용 능력을 직접 보여줄 수 있는 실증 사례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최근 한국 해군 잠수함의 캐나다행은 한국측 제안의 차별화 요소로 평가된다. 국내 독자 설계·건조 잠수함인 3000톤급 KSS-III 1번함 도산안창호함이 태평양을 건너 캐나다 해군과 연합훈련에 나서는 만큼 이번 항해는 단순한 군사 교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실제 운용 중인 한국 잠수함이 캐나다 해군과 함께 훈련하는 장면 자체가 KSS-III 계열의 장거리 항해 능력과 작전 지속성을 보여주는 실물 시연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측은 빠른 전력화와 운용 안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KSS-III는 한국 해군이 실전 배치해 운용 중인 3000톤급 이상 잠수함으로 이미 건조·운용 경험이 축적된 플랫폼이라는 점이 강점이다. 독일 212CD가 독일과 노르웨이의 공동 개발·도입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모델인 만큼 캐나다가 빠른 인도와 운용 안정성에 무게를 둘 경우 한국 측의 납기 대응력도 주요 평가 요소가 될 수 있다.

산업협력 측면에서도 한국은 잠수함 기술 협력과 캐나다산 기자재 활용, 조선·방산·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를 제안하며

현지 기여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독일 측은 잠수함 기술력과 설계 경험을 앞세우고 있다. TKMS가 제안한 212 CD는 독일과 노르웨이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차세대 잠수함 모델로, 기존 잠수함 개발 경험과 장기 운용 지원 능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잠수함은 도입 이후 수십 년간 정비·부품 공급·승조원 훈련이 이어지는 무기체계인 만큼 TKMS의 기술 축적과 운용 지원 체계도 평가 과정에서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TKMS는 세계적인 잠수함 업체로 기술력과 설계 경험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온 곳"이라며 "다만 이번 사업은 기술력만으로 결정되기보다는 산업협력 조건과 현지 기여도, 장기 운용 지원까지 함께 검토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정부와 기업 차원의 수주 지원 활동, 산업협력안, 잠수함 실증 일정 등이 비교적 공개적으로 드러난 반면 독일 측의 세부 보완 제안은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고 내용이 많지 않아 최종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metro

# 냉장고 옮기는 로봇... 산업현장 투입 가시화

현대차 '아틀라스' 작업영상 공개  
테슬라 하반기 옵티머스 본격 생산



현대차그룹 보스턴다이나믹스 아틀라스가 냉장고를 옮기는 모습.

현대자동차그룹, 테슬라 등 글로벌 기업들이 미래 먹거리로 지목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사람과 유사한 모양, 크기, 관절 구조 등을 갖춰 인간과 상호 작용하거나 인력을 대체하는 데 사용된다. 특히 최근 기업들은 생성형 AI를 적용한 휴머노이드 로봇의 영상을 공개하는 등 상용화에 탄력이 붙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보스턴다이나믹스는 지난 18일(미 현지시각) 자사 유튜브 채널에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23kg 무게의 냉장고를 통째로 이동시키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아틀라스는 무릎을 굽혀 냉장고를 양팔로 들어 올린 뒤 균형을 유지한 채 이동한다. 이후 상체를 180도 회전해 냉장고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자 보스턴다이나믹스의 개발자가 냉장고에서 음료를 꺼내 마시면서 마무리 된다. 이번 영상은 아틀라스가 단순 연구용 시연 단계를 넘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전신 제어와 물체 조작 능력을 확보했음을 보여주기에 제작용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아틀라스의 기술력과 함께 산업 현장 투입 시기가 임박했음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테슬라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오는 7월 말이나 8월 초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2026년 1분기 실적 발표 자리에서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테슬라는 AI 기반 공구 동작과 발레, 댄스, 공장에서 이동하는 모습을 담은 다양한 영상을 공유하고 있으며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3세대 제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로봇 스타트업 '피겨 AI'는 최근 인간의 개입 없이 8시간 동안 공장 업무를 완수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연에 성공하며 업계의 주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피겨 AI는 지난 13일 자사의 최신 AI 시스템 '헬릭스-02(Helix-02)'를 탑재한 휴머노이드 로봇 '피겨 03'이 8시간 연속으로 소화물 분류 작업을 수행하는 실시간 스트리밍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양성운 기자

# 고려아연, 영풍 '황산 거래중단' 최종 승소

1·2심 재판부 '합리적 방어권' 인정  
영풍 항고 포기... 법적 분쟁 마침표

고려아연과 영풍 간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위험 물질인 황산의 거래 중단 논란이 고려아연의 완승으로 일단락됐다. 20년 넘게 동업자에게 유독 물질 처리 리스크를 떠넘겨온 영풍의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고 고려아연측에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영풍의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 영풍 측도 대법원 재항고를 최종 포기하면서 이달 14일부터 고려아연의 승소가 법적으로 확정됐다.

양측의 갈등은 2024년 4월 고려아연이 영풍 측에 황산 취급 대행 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못 박으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고려아연은 낡은 저장 시

설로 인한 사고 우려와 유해 화학물질 취급에 따르는 법적 부담, 절대적인 보관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들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영풍은 자사 석포제련소에서 배출되는 황산을 계속 받아달라며 같은 해 7월 법원에 거래거절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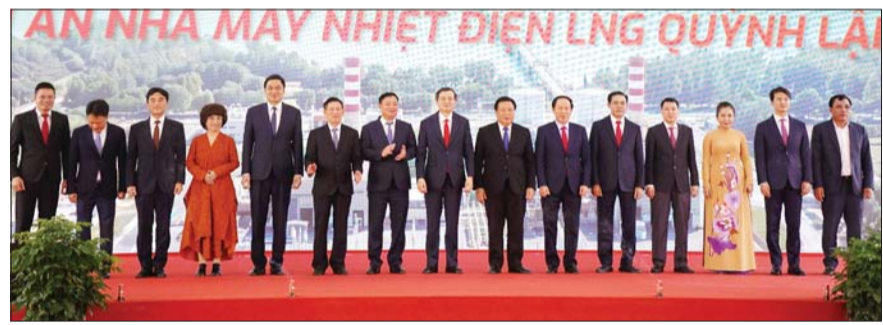
그러나 법원은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년 8월 영풍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으며, 서울고등법원 역시 올해 4월 영풍의 항고를 기각했다. 영풍은 부당한 거래거절, 사업활동 방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등을 주장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재판부는 영풍의 안일한 경영 방식에 대해 지적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영풍이 2003년 아연 생산을 시작한 이래 독자적인 황산 처리 인프라를 구축할

충분한 세월이 있었음에도 고려아연에 위탁한 채 대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고려아연의 조치를 합리적인 방어권 행사로 인정했다. 고려아연이 안전사고를 막고자 2019년부터 지속해서 노후 탱크를 철거해 온 점과 계약 종료 이후인 2025년 1월까지도 대행 업무를 유지하며 영풍 측에 충분한 대비 기간을 제공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영풍이 20년 넘게 자체적인 처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위험물질 관리 부담과 안전 리스크를 전가해 왔음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앞으로도 근로자와 울산시민의 안전, 그리고 환경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18일(현지시간) 베트남 응에안성 띠마이 지구에서 열린 '권람 LNG 프로젝트 기술 인프라 착공식'에서 추형욱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오른쪽에서 두 번째)를 비롯해 보 풍 하이 인민위원장(오른쪽에서 다섯 번째), 레 띠엔 쩌우 부총리(오른쪽에서 여섯 번째) 등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 SK이노, 베트남 '권람 LNG 프로젝트' 첫 삽

AI DC 연계 등 첨단산업 생태계 공략  
SK이노베이션이 베트남 LNG 발전 사업을 첨단 산업 인프라 구축으로 확장하고 있다.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인근 첨단 산업단지에서 공급하고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까지 연계해 베트남의 산업 고도화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은 베트남 국영 발전사 PV 파워, 현지 파트너 NASU와 구성된 컨소시엄이 18일 베트남 응에안성 띠마이 지역에서 '권람 LNG 프로젝트 실행 발표 및 기술 인프라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권람 LNG 프로젝트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남쪽으로 약 220km 떨어진 응에안성 권람 지구에 1.5GW 규모 LNG 복합 화력발전소와 LNG 터미널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약 23억 달러(약 3조 3000억원) 규모로 2030년 12월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발전소와 LNG 터미널 건설을 넘어 SK그룹이 베트남 정부에 제안

한 '특화 에너지-산업 클러스터(SEIC)' 모델을 실제 프로젝트로 구체화한 사례로 평가된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인근 첨단 산업단지에서 공급하고 AI 데이터센터 등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베트남의 산업 고도화를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업계에서는 베트남이 AI 데이터센터와 첨단 제조업 투자 확대에 맞춰 LNG 발전과 송전망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현지 전력 인프라 수요도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SK그룹은 그동안 베트남 정부의 협력 기반을 넓혀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베트남 당 서기장과 국가주석, 총리 등 현지 최고 지도부와 잇따라 만나 SEIC 모델의 방향성을 제안하고 베트남 국가혁신센터 협력 등을 통해 현지 첨단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해 왔다.

추형욱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는 "이번 기반 시설 착공은 베트남 전력난 해소와 첨단 산업 생태계 조성의 출발점"이라며 "2030년 상업운전 목표 달성을 위해 PV 파워, NASU 등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원관희 기자

# LS전선·마린솔루션, '해송 해상풍력'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해저케이블 턴키 수행체계 기반 확보



해송 해상풍력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체결식에서 박승기 LS 전선 에너지국내영업 부문장(왼쪽), 요리스 홀(Joris Hol) ㈜해송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 최고경영자(CEO)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S전선

LS전선과 LS마린솔루션이 국내 대형 해상풍력 사업에서 해저케이블 공급·시공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전력망과 에너지 안보의 핵심 인프라인 해저케이블분야에서 생산·시공을 연계한 턴키 경쟁력을 앞세워 국내 해상풍력 공급망 강화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LS전선과 LS마린솔루션은 전남 신안 해역에서 추진되는 '해송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해저케이블 공급 및 시공 부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9

일 밝혔다. 해송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전남 신안군 흑산도 인근 해상에 504MW급 단지 2기를 조성하는 총 1GW 규모 사업이다. 글로벌 그린에너지 투자개발사 코펜하겐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CIP)가 사업 전반을 총괄하고 산하 해상풍력 개발사 코펜하겐 오프쇼어 파트너스(COP)가 프로젝트 개발을 맡고 있다.

양사는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해저케이블 공급과 시공을 연계한 턴키 수행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 본계약 체결 시 LS전선은 해저케이블 공급을, LS마린솔루션은 시공을 각각 맡아 외부망과 내부망 해저케이블 구간을 통합 수행할 예정이다. /원관희 기자

# 중소 유공자 92명 훈·포장... 금탑훈장에 이연배·이능구 대표

〈오토젠〉

〈칠갑농산〉

중기부·중기중앙회, 중기인대회 개최  
일자리·수출·사회공헌 성과 격려  
김민석 총리 “상생은 생존 전략”  
국민성장펀드·불공정 근절 의지

중소기업 발전에 힘쓴 유공자 92명(단체)이 '2026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훈장·포장·표창을 각각 받았다. 기업인으로서 가장 명예로운 금탑산업훈장은 오토젠 이연배 대표, 칠갑농산 이능구 대표가 수훈했다.

19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선 '변화를 기회로, 도전하는 중소기업'을 슬로건으로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가 열렸다.

중소기업인대회는 일자리, 수출, 사회공헌 등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기여한 중소벤처기업인의 성과를 치하하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중소기업계 최대 규모 행사로 올해가 37회째다.

이날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한성숙 중기부 장관,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임광현 국제청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지원기관장, 중소기업 협·단체장, 전국에서 모인 중소기업인 등 300여 명이 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6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를 개최했다. (앞줄 왼쪽 6번째부터)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김민석 국무총리, 한성숙 중기부 장관 등이 세리모니를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리를 함께 했다.

김민석 총리는 “대의 여건이 녹록지 않다. 지정학적 갈등은 상시화됐고 AI·에너지 대전환과 국내 인구구조 변화 등에 유연하면서도 힘차게 대응하려면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를 혁신해야 한다”며 “우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전국민이 성장 혜택을 골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지향하고 있다. 이젠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의 문제다. 그 변화의 중심에 바로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는 기술 혁신과 시장 개척을 돕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 밸류체인을 구축해 대기업의 수출 성과가 중소기업 매출 증대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와 불공정 거래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영예의 금탑훈장을 받은 이연배 대표는 약 40년간 자동차 부품 산업에 종사하며 핵심 기술 국산화를 통해 국가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이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충돌 안전과

연비 규제 대응을 위한 필수 기술인 ‘핫스탬핑(Hot Stamping)’ 공법을 국내 최초로 상용화해 그동안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차체 경량화 기술의 자립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매출 대비 5% 이상의 R&D 투자와 석사급 이상 인력 비율이 40%에 달하는 연구 인력을 바탕으로 기술 기반 경영체제를 확립했으며, 국내 전기차 제조 기업에 경량화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 주권을 확보했다.

또다른 금탑훈장 수훈자인 이능구 칠갑농산 대표는 쌀 가공식품의 현대화와 K-

푸드 세계화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대표는 1990년 국내 최초로 쌀 가공식품의 보존 기간을 획기적으로 연장하는 ‘주정침지법’을 개발하고 해당 특허를 무상으로 개방해 국내 쌀 가공산업의 대중화와 대량 생산 체제 구축을 견인했다. 아울러 1996년 북미 시장 개척 이후 국제인증 취득 및 현지 유통 판로 개척을 통해 연평균 560억원 규모의 쌀 가공식품을 수출하며 K-푸드의 세계화를 주도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이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혁신성과 지역균형성장이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첨단전략산업뿐만 아니라 전통제조업까지 혁신할 수 있도록 정부의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통제조업의 AI 전환은 이제 생존의 문제인 만큼 데이터 구축 지원과 업종별 협동조합 중심의 협동형 AX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지방간 이전기업과 향토기업까지 지원 사각 지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 9세부터 90세까지... ‘모두의 창업’ 6만명 넘게 몰렸다

중기부, 최종 6만2994명 접수  
정부 창업 공모전 역대 최대 규모  
39세 이하 청년 신청자 68% 차지  
AI 키워드 아이디어 약 30% 달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신청자가 6만명을 훌쩍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최연소 신청자는 9세, 최연장 신청자는 90세로 세대를 넘어 창업 열풍이 불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월 2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진행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접수 결과 정부 부처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인 6만2944명이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청년들의 참여도 돋보였다. 전체 신청자 가운데 39세 이하는 전체의 68%인 4만2798명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신청자도 540명에 이르렀다.

지역의 창업 열기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신청자 중 지역 신청자는 총 3만3628명(53.4%)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트랙별 지역 신청 비중은 일반·기술 트랙 50%, 로컬 트랙 69.4%를 기록했다.

분야별로는 일반·기술 트랙에서 IT 분야가 1만4728명(28.4%)으로 가장 많았고, 라이프스타일 1만1360명(21.9%), 교육 4077명(7.9%)이 뒤를 이었다. 로컬 트랙은 생활 분야가 7069명(64.1%)으로 가장 많았고, F&B 분야는

2992명(27.1%)으로 뒤를 이었다.

전 산업 분야에 걸쳐 인공지능(AI)의 확산 흐름도 확인됐다. 일반·기술 트랙 도전신청서 가운데 AI 키워드가 포함된 아이디어는 총 1만5339건으로 전체 아이디어 중 29.6%를 차지했다. 한 줄 아이디어 키워드 분석 결과에서도 일반·기술 트랙의 1위는 AI(1만1500건·42.2%)로 집계됐다.

중기부는 접수된 6만여 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전국 멘토기관의 검증을 거쳐 6월 중 5000명의 창업인재를 선발할 예정이다.

선정된 창업인재에게는 AI 솔루션, 그래픽 처리장치(GPU), 규제 스크리닝(규

제사항 사전검토) 등 창업가로 성장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모두의 창업’ 캠퍼스 투어에서 청취했던 청년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2차 모두의 창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모두의 창업에 모인 6만2000개의 도전이 국가 창업시대의 열기를 직접 증명하고 있다”며 “선정된 아이디어에는 인공지능 솔루션, 규제 스크리닝(규제사항 사전검토) 등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선정되지 못한 5만7000명의 도전자에게도 재도전 멘토링을 제공해 재도전 기반을 탄탄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 LG에너지솔루션 전기 이륜차 500대 투입 하노이서 교환실증 착수

LG에너지솔루션이 혼다, 베트남 하노이시와 손잡고 전기 이륜차 배터리 교환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내연기관 오토바이 규제가 확대되는 하노이를 중심으로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 실증을 추진하며 동남아 친환경 모빌리티 시장 공략 기반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혼다, 하노이시와 ‘전기 이륜차용 공공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 구축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이들은 올해 3분기부터 하노이 주요 지역에 약 50개의 전기 이륜차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을 구축하고 총 500대 규모의 전기 이륜차를 도입해 실증 사업을 시작한다.

/원관희 기자 wkh@

## 볼보 XC90, 안전·기술 앞세워 패밀리카 입지 굳힌다

올 1~4월 773대 판매, 전년비 98% ↑  
안전·편의사양 강화로 상품성 개선  
네이버 웨일·11.2인치 화면 탑재  
보증·OTA·5G 패키지 혜택 제공

볼보자동차코리아의 플래그십 스포츠유틸리티차(SUV) XC90이 차별화된 안전성과 첨단 기술을 통해 패밀리카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 특히 판매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국내 시장에서의 꾸준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자동차기자협회(KAIDA) 통계에 따르면 XC90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총 773대가 판매됐는데, 이는 전년 동기(391대) 대비 98%, 직전 같은 기간(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737대 대비 5%의 판매 성장을 기록한 수치다.

XC90의 인기 비결은 한층 개선된 차



볼보 XC90.

량의 상품성이다. 스칸디나비아 디자인, 최첨단 안전 기술, 최고 수준의 편의 사양 등을 하나의 패키지에 담아 볼보자동차가 정의하는 진정한 스웨디시 럭셔리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다.

외관은 새로운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와 프론트 범퍼 및 펜더, 보닛 등의 디테일의 변화를 주며 차세대 전기차와

긴밀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브라이트 또는 다크 테마의 선택지를 제공해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실내는 ‘스웨디시 리빙룸’ 콘셉트를 바탕으로 재활용 폴리에스터 텍스타일과 우드 데코, 향상된 엠비언트 라이트 등 고품질의 소재를 혁신적인 방식으로 결합해 최상의 안락함을 구현했다. 탁

월한 착좌감을 제공하는 최고급 나파레더 소재의 시트는 새로운 표준으로 제공되는 카다멈을 비롯해 차콜, 블론드 컬러의 선택할 수 있다.

여기에 볼보자동차의 차세대 사용자 경험인 ‘Volvo Car UX’와 ‘네이버 웨일’이 기본으로 탑재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OTT, SNS, 음악 스트리밍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차량 내에서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주행 성능과 안락함 측면에서도 7인승 플래그십 SUV의 완성도를 끌어올렸다. 마일드 하이브리드(B6)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T8) 파워트레인은 전동화 시대에 걸맞은 효율과 성능을 제공하며, 울트라 트림에 기본 적용된 에어 스펀션은 초당 500회씩 차량과 노면, 운전자 모니터링하는 액티브 새시와 결합해 탁월한 승차감과 안정적인 주행 질감을 선사한다.

/양성문 기자 ysw@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투자 인재 키운다 62기 V-Up 과정 개설

한국벤처캐피탈협회(VC협회) 부설 연수원이 ‘제62기 벤처투자 전문인력 양성(V-Up) 과정’을 연다. 19일 VC협회에 따르면 오는 6월 22일부터 29일까지, 그리고 7월 1일부터 3일까지 각각 개최하는 V-Up 과정은 연수원의 대표 교육과정 중 하나다.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과 검증된 강사진을 통해 참가자들이 벤처투자 역량과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기수 기반의 인적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벤처캐피탈 및 유관 산업 종사자 간 폭넓은 교류 기회를 제공한다.

/김승호 기자



# G-ROUND ART FAIR 2026

9.17

9.20

성도컨벤시아  
1011

Beyond Art

예술을 넘어서... 후미리즘이 되다

글로벌 그라운드 아트페어 2026

| 주최 세계일보 | 주관 GAF조직위원회 | 후원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KOREAN FINE ARTS ASSOCIATION 문의 : 02-6743-3303

# SKT, AIDC 고객사 한계·전력 부담 '에이닷' 유료화로 수익 안정 고심

올해 1분기 AIDC 매출 89% 급증  
안정적 수익 확보 필요성 제기  
AI 기술력 유료화 수준 도달 고민

SK텔레콤이 미래 먹거리로 육성 중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사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AI 개인비서 서비스 '에이닷' 유료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의 올해 1분기 AIDC 사업 분야 매출은 131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9.3% 급증했다. 2024년 말 처음으로 가산에 AIDC를 열고 시범 운영에 돌입한지 약 1년 3개월 만의 성과다.

SK텔레콤의 AIDC 수익 모델은 기업 고객에 판매하는 GPU 클라우드 서비스(GPUaaS)다. 방대한 데이터 연산에 필요한 GPU 칩을 보유한 클라우드 임대 수익이 매출로 연결된다. 회사는 사업 규모를 키우기 위해 지난해 가산 AIDC에 엔비디아 차세대 GPU B200 칩을 탑재한 대규모 클러스터 '해인'을 구축했다.

2027년 1단계 가동을 앞둔 울산 AIDC는 아마존웹서비스(AWS)와 협력해 2029년 완전 가동된다. 울산 센터에 글로벌 고객사를 유치하기 위해 최종 900MW 규모 전력 용량을 목표로 15조원 가량을 추가 투자한다.



SK브로드밴드 가산 AI DC에 구축된 B200 클러스터 '해인'의 내부 모습. SK텔레콤은 가산 AI DC에 H100에 이은 최신 B200 GPU 클러스터를 조성했다. /SKT

다만 현재까지는 고객사 포트폴리오가 국내 공공·금융 시장에 집중되었던 점은 한계다. AIDC 사업은 막대한 초기 투자와 전력 비용 등 지출이 크기 때문에 장기 계약, 대규모 공급이 유리하다. IT 시장 분석·컨설팅 기관 한국IDC에 따르면 국내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는 2028년까지 연평균 11% 가량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력 비용 부담도 덩달아 커진다는 의미다.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해서는 B2C AI 서비스 에이닷을 유료화해 알짜 사업으로 만드는게 관건이다. 구독형 서비스는 가입자 체류시간과 통신 서비스 충성도를 높일 수 있다. SK텔레콤이 보유한 국내 가입자 수는 2000만 명, 통신 시장 점유율은 39%로 통신사 중 가장 비중이 크다.

에이닷 유료화 계획은 2024년부터 번

번히 밀려 올해도 연기된 상태다. 선부른 과급이 이용자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배경이 됐다. 정석근 SKT CTO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 "현재 AI 기술력이 유료화 레벨 성능에 도달했는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에이닷이 유료 구독 모델로 전환할 경우 자체 인프라를 통한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SK텔레콤은 AI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센터와 대형언어모델(LLM) 에이닷 엑스를 모두 갖추고 있다. AI 인프라와 모델, 서비스를 직접 구축하는 '풀스택 AI' 전략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최근에는 외국산 GPU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국내 기업 리베리의 최신 제품 리벨 100을 AIDC에 추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 KT, 국방 시스템에 양자내성암호 적용

육군정보통신학교에 PQC 공급  
대영에스텍·이에스이와 컨소시엄

KT가 양자 보안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에 나선다.

KT는 국방 주요 시스템에 양자내성암호(PQC)를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양자내성암호(PQC)란 양자 컴퓨터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수학적 난제에 기반해 설계한 차세대 암호 기술이다. 양자컴퓨터가 기존 공개키 암호 체계를 해독할 위험성이 제기되면서 전 세계 국방 분야에서 보안 강화를 위해 빠르게 PQC 전환에 나서고 있다.

이번 공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관하는 양자내성암호 시범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이뤄졌다. 사업 목표는 기존 공개키 암호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고 국가 핵심 인프라에 안전한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다.

KT는 육군정보통신학교에 PQC를 공급하기 위해 국방부와 실증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대영에스텍·이에스이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이번 사업에서 ▲스마트부대 플랫폼(edge)-사용자PC▲CCTV-영상저장시스템(NVR) ▲드론-지상관제시스템(GCS)▲5G라우터-코어네트워크 등 주요 인프라 구간에 PQC 모듈을 적용한다.

특히 스마트부대 플랫폼은 제조사가 다른 장비와 다계층 네트워크가 결합한 구조로 PQC 전환이 필수적인 영역이다. 실제 전장 환경 속에서 성능과 적용성 검증이 거쳐 통합 시스템을 구현할 계획이다.

향후 글로벌 보안 기준에 부합하는 차세대 보안 서비스 모델 개발과 함께 이번 사업을 통해 축적한 검증 결과와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공공·민간 영역에 PQC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KT는 공공·금융·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 양자 보안 기술을 공급해왔다. 서울-부산 이기종 양자암호통신 연동 실증, 신한은행 하이브리드 양자 보안망 공급, 국립암센터 AI 의료데이터 양자암호화 사업 등이다.

/조민선 기자

## SKT, 'T 장기고객 숲캉스 데이' 성료

응모 경쟁률 863:1 '역대 최대'

SK텔레콤은 'T 장기고객 숲캉스 데이'를 성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일부터 18일까지 6회에 걸쳐 진행됐다. 1800여명의 장기고객들이 모여 가족, 지인과 함께 휴식을 즐기며 추억을 쌓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 장소로 선정한 에버랜드 내 포레스트 캠프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은행 군락지로 알려졌다.

고객들의 호응도 뜨거웠다. 응모 경쟁률은 863:1을 기록해 역대 초청 이벤트 중 가장 높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액정 필름 교체와 휴대폰 클렌징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비스 ▲ SKT 및 통신 서비스에 대한 추억을 나누는 T.M.I(T-Memory-I) 등이 높은 호응을 받았다.

행사에 참가한 한 고객은 T.M.I 사연을



정재현 SKT CEO(가운데)가 SKT와 40년 이상 함께한 김홍재님(왼쪽)과 고지홍님에게 직접 준비한 선물세트를 전달했다. /SK텔레콤

통해 "고등학교 때까지 '빠빠'만 쓰다가 대학 입학 후 처음 샀던 벽돌폰이 생각난다"며 "엄마가 된 지금까지 24년 넘게 온 가족이 SKT와 함께하고 있다"고 전했다.

SK텔레콤은 장기 고객 혜택을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 중 미식 경험과 놀이공원 심야 초청, 인기 뮤지컬 공연 대란 등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조민선 기자

## 카카오 노사, 오는 27일로 조정기일 연장

카카오 본사, 추가 협상시간 확보  
일부 계열사는 조정 중지 결정

카카오 노사가 조정 기일을 연장하며 본사 첫 파업 위기를 일단 넘겼다. 다만 계열사 조정 결정이 이어지며 그룹 전반의 노사 갈등 긴장감은 계속되는 분위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노사는 전날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중재 아래 조정 절차를 진행한 뒤 상호 합의를 통해 조정 기일을 연장했다. 2차 조정 기일은 오는

27일이다.

카카오 노조는 성과급 지급 기준과 임금 인상률 등을 두고 사측과 협상을 이어왔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며 교섭 결렬을 선언한 바 있다.

카카오 본사는 추가 협상 시간을 확보하며 일단 파업 위기를 피했지만, 계열사 상황은 다르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카카오페이 등 일부 계열사는 앞선 조정 과정에서 중지 결정이 내려졌고, 디케이테크인과 엑스엘게임즈 역시 조정이 결

렬됐다.

조정 중지가 결정되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과 태업 등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다. 업계에서는 계열사를 중심으로 연쇄 파업 가능성도 제기한다. 다만 현재까지 카카오 본사 차원의 실제 파업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카카오 노조는 20일 경기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사측 압박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 네이버 D2SF, AI 스타트업 클론랩스 투자

AI 에이전트 관리피로 감소 기술 주목  
사용자 패턴 학습 '유저 모델' 개발

네이버 D2SF가 사용자의 의사결정과 컴퓨터 사용 패턴을 학습하는 AI 스타트업 클론랩스에 신규 투자했다. AI 에이전트 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이전트 관리 피로'를 줄이기 위한 차세대 인터랙션 기술에 주목한 투자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클론랩스는 사용자의 컴퓨터 사용 패턴과 업무 흐름을 학습해 다음 행동을 예측·대행하는 '유저 모델(User Model)' 기술을 개발 중이다. 사람이 직접 AI 에이전트에 반복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AI가 사용자의 의도와 맥락을 이해해 스스로

판단하는 구조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다. 최근 AI 에이전트 활용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사용자가 결과를 검토하고 추가 명령을 입력하는 과정 자체가 새로운 병목으로 떠오른다. 클론랩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의 행동과 선호를 학습한 AI가 직접 에이전트들과 소통하는 형태의 인터랙션 구조를 개발하고 있다.

기술 구조는 ▲컴퓨터 사용 패턴을 기록하는 '레코딩' ▲사용자 선호와 맥락을 축적하는 '메모리' ▲이를 기반으로 다음 행동을 예측·수행하는 '프리딕션' 등 3단계 레이어로 구성했다. 예측 신뢰도가 높은 작업은 자동 수행하고, 낮은 작업은 사용자 확인을 거치는 방식으로 안정성도

강화했다.

클론랩스는 AI 에이전트를 적극 활용하는 'AI 빌더'를 첫 타기 이용자로 설정하고 '클론 데스크톱(Clone Desktop)'과 '클론 플러그인(Clone Plugin)'을 출시했다.

클론랩스는 서울대학교 학부생 출신 중심으로 구성된 스타트업이다. 스탠퍼드대학교와 카네기멜런대학교 등과 협업체 AI 에이전트 관련 논문 7편을 발표했으며, 컴퓨터를 사람처럼 조작하는 CUA와 장기 메모리, 프라이버시 보존 메모리 아키텍처 등을 연구해왔다.

이번 투자는 네이버 D2SF 캠퍼스 기술창업 공모전을 통해 인연이 이어졌다. 클론랩스는 지난해 하반기 공모전을 통해 발굴됐으며, 올해 1월 인큐베이팅 시작 이후 약 3개월 만에 투자로 연결됐다.

/최빛나 기자

## LG U+, '보이넥스트도어' 앰배서더 발탁

온·오프라인 연계 팬덤 참여형 마케팅

LG유플러스는 보이그룹 보이넥스트도어를 브랜드 앰배서더로 발탁한다고 19일 밝혔다.

일상 속에서 LG유플러스 서비스를 경험하고 소통하기 위해 보이넥스트도어를 공식 모델로 발탁하고 새로운 캠페인을 진행한다. 팬덤 접속력과 참여 문화를 기반으로 브랜드 경험을 확대할 방침이다.

먼저 보이넥스트도어의 정규 1집 메인곡 '뚝뚝뚝'을 먼저 공개하는 컴백 시점에 맞춰 광고 콘텐츠를 선보인다. 유플러스 공식 앱 내 보이넥스트도어 앨범 소개를 제공한다. 동시에 전국 매장서 캠페인 크리에이티브를 활용한 홍보를 운영하고 매장 내 뮤직비디오를 송출해 고객 체험 요소를 확대한다.

특히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팬덤 참여형 마케팅이 주목된다. 뮤직비디오를 활용한 광고 콘텐츠 등을 통해 모은 관심이



보이넥스트도어 새 캠페인 광고 이미지. /LG유플러스

실제 매장 방문으로 이어져 디지털부터 오프라인까지 고객 경험을 자연스럽게 연결했다.

김다림 LG유플러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담당은 "소비자의 참여와 확산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디지털·오프라인·매장·자사 플랫폼을 유기적으로 연결했다"며 "고객의 관심부터 구매까지 이어지는 여정 전반에서 차별화된 접점을 마련해 시장 차별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조민선 기자

# 지수는 최고치인데 체감은 없다... 커지는 증시 K자 양극화

삼전·하이닉스에만 자금 몰려 이달 상장사 84%, 추가 하락·보합 개인, 코스피 약 33조 순매수



ChatGPT로 생성한 관련 이미지.

개인 투자자 박모(39)씨는 연일 오르는 코스피에도 웃지 못했다. 지난해 네이버에 집중 투자했는데 주가는 오히려 떨어졌다. 박씨는 "일부는 중간에 팔아서 큰 손해를 보진 않았지만, 삼성전자·SK하이닉스 같은 다른 주식이 미친 듯이 오르니까 가만히 있는 내가 벼락거지가 된 기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다른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라서 옮겨갈 데도 없다"며 "지금이라도 팔까 생각했지만 그러면 그동안 버틴 세월과 나의 어리석음을 인정해버리는 꼴이 될까봐 버티고 있다"고 한탄했다.

겉모습만 보면 국내 주식시장은 사상 유례없는 호황이다. 최근 7000 고지를 밟은지 7거래일만인 지난 15일(중종 기준)엔 8000도 뚫어냈다. 최근 중등 불안과 고물가(금리 상승) 등에 대한 우려와 단기 급등 부담에 숨을 고르고 있지만, 시중 뭉치돈은 증시로 모여들고 있다. 19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3.25%(244.38포인트) 하락한 7271.66에 장을 마감했다. 장 중 한 때

7141.91까지 밀렸지만, 5조6000억원가량의 순매수에 나선 개인투자자의 기세에 7200선을 지켰다.

하지만 그 이면엔 어두운 그림자도 있다. 삼성전자 등 일부 종목이 주가 상승을 이끌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증시에서도 윗목과 아랫목의 온도 차가 큰 'K자형 양극화'가 나타나는 모양새다. 큰놈만 잘나가는 '코스피 디바이드(격차)'다.

### ◆대형주만 오른다

정말 내 계좌만 모르지 않은 걸까. 종목

별로 보면 증시 양극화는 뚜렷하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2877개 가운데 2429개(84%)의 주가가 하락하거나 보합에 머물렀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부근까지 상승하고 실적도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주가 상승의 과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일부 반도체 대형주에 집중되고 있다. 상장 종목 10개 중 8개 종목들이 지수 상승에서 철저히 소외된 셈이다. 특히 시가총액 1~100위 종목으로 이뤄진 대형주 지수는 15.69%(1~15일) 치

솟으며 중·소형주 흐름과 극명한 대비를 이뤘다.

황선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부문 부원장은 지난 11일 자본시장·회계 부문 현안 브리핑에서 "코스피 상장 종목의 29%, 코스닥은 36%가 올해 들어 하락하는 등 중목별 양극화가 진행 중"이라고 짚었다.

증권가에서는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실적 전망치에 기반한 대형주 쏠림 현상의 심화를 꼽는다. 특히 국내 증시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코스피 내 시가총액 비중은 48%까지 높아졌다. 12개월 예상 순이익 기준으로는 코스피 전체의 72%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비중을 보이고 있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반도체와 비반도체 업종 간 이익 격차 확대를 지적했고, 김준영 iM증권 연구원은 자금이 실적이 확실한 주주에 집중되는 현상이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 ◆개미들 반도체에 집중 투자

시장 전문가들은 "과거와 달리 개인 투자자들이 대형주 위주로 사들인 게 주가 양극화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개인 투자자는 이달 들어 코스피 시장에서 33조 원가량 순매수했는데, 이 중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각각 12조5378억원, 8조

1480억원어치 사들였다. 전체 순매수액의 63% 수준이다.

상당수 개인투자자가 코스피 상승을 체감하지 못하는 데는 2021년 '동학개미운동(개인의 국내 주식 투자 열풍)' 당시 매입했던 종목의 손실이 워낙 큰 탓도 있다. 코스피 3000 돌파(2021년 1월 7일) 당시 코스피 시가총액 6위였던 셀트리온은 현재 19위, 8위였던 네이버는 현재 29위, 10위였던 카카오는 현재 49위로 밀려났다.

반도체와 대형주의 편중 우려는 끊이지 않지만, 쏠림은 더 커질 전망이다. 오는 27일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2배 상품이 상장된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이찬진 원장 주재로 제2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열고 이달 말 출시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앞두고 과도한 자금 쏠림과 개인투자자 손실 가능성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최근 증시 과열 속에서 빚내서 투자하는 '빚투'와 레버리지 투자를 부추기는 금융사의 마케팅, 시장을 교란하는 핀플루언서에 대한 감독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허정윤 기자



zolkova@metroseoul.co.kr



## 첨단산업 투자 국민성장펀드 22일 나온다

반도체·AI·바이오 등 분야 투자 모집 규모 6000억, 선착순 판매



이역원 금융위원장

뉴시스

정부가 손실의 일부를 먼저 부담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22일부터 판매된다. 최소 10만원부터 가입할 수 있지만 5년간 환매가 불가능하고 원금도 보장되지 않는 고위험 상품으로서 투자 전 구조를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19일 금융위원회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가입과 관련한 주요 문의사항(FAQ)을 공개하고 판매 일정과 가입 방법,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일반 국민이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형 공모펀드다. 정부가 향후 5년간 150조원을 공급하는 국민성장펀드 가운데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간접투자 상품이다.

일반 국민 대상 모집 규모는 6000억원이다.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주간 선착순 방식으로 판매되며, 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 마감된다. 판매 첫 주

에는 온라인 판매 물량을 전체의 50% 수준으로 관리한다.

판매 기간 중 첫 2주(6월 4일까지)에는 전체 판매액의 20%인 1200억원이 서민 전용으로 배정된다.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경우 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동일한 기준으로 청약할 수 있다. 2주 내 판매되지 않은 물량은 마지막 주에 전 국민에게 개방된다.

가입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10개 은행과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 15개 증권사의 영업점 또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가능하다.

메리츠증권, 신한투자증권, 아이엠투증권, 유안타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5개 증권사는 최소 10만원부터 가입할 수 있다. 나머지 판매사의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이다.

1인당 연간 가입 한도는 전용계좌 기준

1억원이며, 5년간 총 2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세제혜택을 받지 않는 일반계좌로는 연간 3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ISA 가입용 소득 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서류는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또는 세무서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상품 출시 전에 미리 준비하면 보다 신속하게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계좌 가입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가입하는 판매사와 관계없이 수익률은 동일하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적립식 상품이 아니라 가입 시 투자금을 한 번에 납입해야 한다. 또한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상품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1등급 고위험 투자상품으로, 투자자 성향 분석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재정 1200억원을 후순위로 출자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일반 투자자보다 먼저 손실을 부담한다. 다만 개인별 투자금의 20%를 직접 보전해 주는 것은 아니다. 국민 투자금 6000억원과 정부 재정, 자펀드 운용사의 시금 투자금을 합쳐 펀드를 조성하고 후순위 자금이 먼저 손실을 흡수하는 구조다. /허정윤 기자

## 미래에셋증권 고객맞춤형랩 4조 돌파

장기 투자·리밸런싱 전략 효과 글로벌 성장 산업에 선제 투자

미래에셋증권의 일대일맞춤형자산관리 서비스가 가입금액 4조원을 돌파하며 고객 자산관리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고객맞춤형랩(지점운용랩) 가입금액이 4조 2000억원을 넘어섰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평균금액은 7조 7000억원으로, 약 3조5000억원의 고객 수익이 발생했다. 글로벌 혁신기업 중심의 장기 투자 철학과 국내 우량 주식으로의 적절한 리밸런싱 전략이 성과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고객맞춤형랩은 단순히 가치주와 성장주를 구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의 혁신성과 경쟁력을 기준으로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절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정 국가에 대한 투자 쏠림을 경계하면서 인공지능(AI), 반도체, 빅테크 등 글로벌 트렌드를 주도하는 우량 자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디지털 기반의 고객 경험 혁신도 성장의 배경으로 꼽힌다. 미래에셋증권은 고객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자산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대표 서비스인 '찾아가는 가입 서비스'는 프라이빗뱅크(PB)가 고객이 원하는 장소를 직접 방문해 계좌 개설부터 운용 전략 컨설팅, 랩어카운트 가입까지 윈스톱으로 지원한다. /허정윤 기자



## 예탁결제원, 지역 창업기업 육성 '성과'

308개 기업... 투자유치 1190억 달성

혁신의 씨앗은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지만, 그것이 기업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자금과 네트워크, 그리고 믿고 밀어주는 든든한 조력자가 필요하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비수도권 창업 지원 프로그램 'K-Camp'는 지난 6년간 지역 곳곳에 뿌려진 작은 아이디어들이 유망 스타트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토양을 다져왔다. 한국예탁결제원은 비수도권 혁신창업

기업 육성 프로그램 K-Camp를 통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08개 기업을 지원했으며, 이들 기업이 813명의 신규 고용과 1189억8000만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K-Camp는 수도권에 집중된 창업 인프라와 벤처투자 편중을 완화하기 위해 2019년 출범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체 벤처기업의 약 40%가 비수도권에 위치했지만, 실제 비수도권 벤처투자 비중은 20% 수준에 그쳤다.

예탁결제원은 지역 창업기업에 성장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업 생태계의 구조적 불균형 해소와 ESG 경영 실천에 나서고 있다.

프로그램은 현재 대전·충청, 광주·전라, 대구·경북, 강원, 제주 등 5개 권역에서 운영된다. 기업 선발부터 킥오프 워크숍, 6개월간의 집중 멘토링, 중간 기업설명회(IR), 최종 데모데이까지 약 7개월간 이어진다. 참가 기업들은 기업 진단, 1대1 멘토링, 자본시장 교육, 네트워킹, 투자유치 지원,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연계 등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받는다.

성과는 숫자로도 확인된다. 2025년 한

해 동안 K-Camp 참여 기업들은 164억 7000만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냈고 8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다. 매출은 141억 5000만원 증가했으며 연구개발(R&D), 자본조달, 창업지원사업 선정 등과 관련한 사업제휴 85건도 성사됐다.

예탁결제원은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도 성장 사다리를 이어주고 있다. 한국산업은행과 협력해 우수 기업에 대표 벤처투자 플랫폼인 '넥스트 라운드(Next Round)'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KSD 지역벤처펀드 운용사인 로우파트너스와 연계해 후속 투자 가능성도 확대하고 있다. /허정윤 기자

# “한강라면 먹으러 줄 섰다”... 대만 사로잡은 K-포장마차

aT, 'K-푸드 팝업스토어' 개최  
1.3만명 다녀가 판매액 약 1000만원  
뉴욕 '발효식품 홍보 행사'도 성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대만 현지인을 대상으로 K-포장마차를 부각하고, 이른바 '한강 라면' 등의 길거리음식을 알렸다. 미국에서는 현지 상·하원의원 및 정부관료를 초빙해 전통 발효음식을 선보였다.

aT는 지난 15~17일(현지시간) 타이베이 내 대표 복합문화공간인 '화산1914 문화창의산업원구'에서 '대만 K-푸드 팝업스토어'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한국관광공사 타이베이지사의 2026 K-관광 로드쇼와 연계해, K-푸드와 K-관광을 함께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특히 '포장마차'를 주제로 한국의 길거리 음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팝업스토어를 꾸몄다.

드라마속 포장마차를 재현한 포토존은 입소문을 타며 행사기간 내내 문전성시를



대만 타이베이 K-푸드 행사장을 찾은 현지인들. /aT

이뤘다. F&B존에서는 떡볶이, 핫도그 등 대표적인 K-스프리트푸드를 선보이는 등 드라마에 나온 K-분식의 체험기회를 제공했다.

판매마켓존과 마켓테스트존에는 과자류부터, 콤팩트, 유기농 현미칩 등 폭넓은 제품군을 진열해 방문객 눈길을 끌었다.

또 소비자 반응 조사도 실시해, 대만에 진출하려는 수출기업에 마켓테스트 기회도 지원했다.

팝업스토어에서 큰 인기를 모은 콘텐츠는 한강 라면이었다. 즉석라면 조리기를 체험하려는 방문객들이 행사장 밖까지 줄서는 등 진풍경이 펼쳐졌다.

행사장을 찾은 한 대학생의 소감도 전해졌다. 이 학생은 “드라마에서만 봐 온 한강 라면을 타이베이 한복판에서 직접 만들고 먹어보니, 한국 여행 온 것 같다”고 했다.

이번 K-푸드 팝업스토어에는 사흘간 방문객 1만3000여명이 다녀갔다. 현장 판매액만 약 1000만 원(23만 대만 TWD)에 달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주말에는 하루 평균 5000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다.

aT의 전기간 수출수출품이사는 “K-푸드의 대만시장 수출은 지난해 역대 최고인 4억8700만 달러를 달성하는 등 대만은 중화권 핵심 시장”이라며 “앞으로도 현지 MZ세대의 소비 트렌드와 결합한 체험형 마케팅을 강화해, K-푸드가 대만 소비자의 일상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달 6일 aT는 미국 뉴욕 올버니 주정부 청사에서 김치와 장류 등 한국 발효식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행사를 개최했다. 뉴욕주 상·하원의원 및 정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행사는 대미 5월 기념하는 ‘아시아·태평양계 미국인 문화유산의 달’에 맞춰 기획됐다. 특히 올해는 지난 1월 미국 정부가 ‘미국인을 위한 식단지침 2025-2030’에 김치가 포함된 것을 계기로, K-발효식품의 영양학적 우수성·맛에 대한 체험기회 제공에 중점을 뒀다.

행사에는 조셉 에이 그리포 미 상원의원을 비롯해 데이비드 아이타 웨프린, 조앤 사이먼, 날리 로직 하원의원 등 총 12명의 의회위원이 자리를 함께했다.

그리포 상원의원은 “최근 미국에서는 식품을 볼 때 건강성·기능성과 함께 인공첨가물을 줄였는지 우선적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어 “김치가 건강한 발효 슈퍼푸드인 만큼 미국인들에게 널리 알려질지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날 김치를 활용한 백김치샐러드, 김치전, 김치데지갈비찜 등과 장류를 활용한 고추장닭강정, 잡채, 된장삼겹살찜 등이 오찬 메뉴로 제공됐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 김정관 “착한주유소, 유가안정 노력 감사”

(산업부 장관)

현장 격려하고 애로사항 청취  
내비게이션 위치 표출 등 홍보 강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9일 착한주유소로 선정된 주유소 대표들을 만나 물가안정 노력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구로구 소재 착한주유소인 대원셀프주유소를 방문해 주유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장관은 중동발 유가 불안에 따라 국내 물가가 상승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석유가격 안정에 앞장 서고 있는 착한주유소들을 격려하는 한편,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착한 주유소는 지난 3월 13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부터 시민단체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이 선정한 주유소다.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2주마다 서울·경기 지역은 10개소, 그 외 지역은 5개씩 지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4차례 총 334곳이 선정됐다. 최근 전국 주유소 평균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2011원, 경유 2006원 수준으로 산업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착한주유소 선정 등 노력으로 석유제품 가격이 안정적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구로구에 대원셀프주유소에서 대원셀프주유소, 타이거통상 월드컵주유소, 북두칠성주유소, 신화에너지 오해피주유소, 광활농협주유소 대표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착한 주유소 현장방문 및 간담회’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산업부

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재경부에 따르면,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국내 물가는 지난 3월 0.6%포인트, 4월 1.2%포인트 수준의 완화 효과를 보였다. 지난 3월 OECD 평균 에너지 물가가 8.1% 상승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5.2%에 그치며 글로벌 에너지 위기 속에서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는 평가다. 착한 주유소는 전국 평균 가격보다 리터당 약 14~15원 저렴하고, 대원셀프주유소, 월드컵주유소 등 누적 2회 이상 선정된 24개 핵심 주유소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리터당 19원~21원까지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이들 주유소의 노력을 독려하기 위해 오픈넷 배너 개설은 물론 티맵,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등 민간 주요 내비게이션에 착한 주유소 위치를 표출하는 등 온라인 홍보를 대폭 강화했다. 아울러 누적 5회 이상 지정되는 곳은 ‘착하다 착한 주유소’로 명명하고 정부 포상과 전용 마크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송미령, 전주서 영농형 태양광 성과 점검

(농림식품부 장관)

‘영농형태양광법’ 시행 준비 박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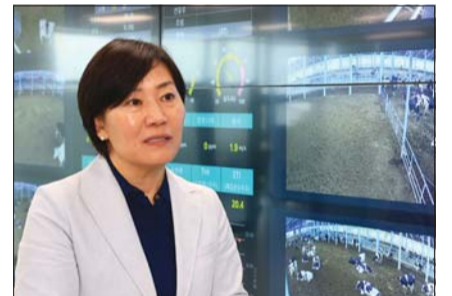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영농형 태양광법’은 식량안보 및 농업인 소득향상의 측면에서 큰 가치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또 이 법률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후속조치 마련 등 정책적 역량을 발휘해 가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19일 전북 전주 농촌진흥청을 방문해 영농형 태양광의 실증연구 성과를 살폈다. 특히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관련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 법은 이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업인·농촌 주민이 영농활동과 발전 사업을 병행해, 농지를 유지하면서도 소득 제고 및 농업·농촌의 에너지 전환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제정됐다.

아울러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햇빛소득마을’에서, 영농형 태양광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법이 마련됐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농식품부는 이 법의 국회 통과를 계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로, 하위법령 마련 시 현장 의견을 반영해 보다 현장성 높은 제도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송 장관은 “식량안보 확보, 농업인 등의 소득제고, 질서 정연한 도입이라는 3대 원칙에 따라 영농형태양광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법 시행 전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세밀하게 반영해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면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실증단지에는 농식품부와 농진청이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조성한 ‘고정형·추적형 태양광’ 등 다양한 형태의 시설이 설치돼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 K-의료·바이오업계, 中 실버시장 정조준

코트라-韓대사관-보건산업진흥원  
‘메디컬 코리아 인 차이나’ 개최

60세 이상 인구가 3억 명을 넘어선 중국의 실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대한민국 의료·바이오 산업이 ‘원팀’으로 뭉쳐 현지 공략에 나섰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주중 대한민국대사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지난 18일~20일까지 사흘간 중국 베이징에서 ‘메디컬 코리아 인 차이나(Medical Korea in China)’를 개최했다고 밝

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25년 11월 한·중 양국 정부 부처 간 체결된 ‘실버경제 업무협약(MOU)’ 이후 처음으로 열린 실버산업 분야 대규모 비즈니스 협력 장이다.

중국은 현재 60세 이상 인구가 3억 2000만 명에 달하며, 주요국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 중국 국무원은 2024년 실버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해 전폭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관련 업계는 중국 실버 시장 규모가 2035년 약 30조 위안(한화 약 57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중국 노년층은 자산 규모가 크고 디지털 활용 능력이 뛰어난 ‘액티브 시니어’로서 건강과 가치 소비의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가 장비 및 고도화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는 추세다.

이번 행사는 중국 최대 실버산업 전시회인 ‘중국국제양로서비스박람회(CISSE)’ 내 한국관 운영과 ‘한·중 실버경제 포럼’으로 구성됐다. 한국관에는 의료기관, 의약품, 의료기기 기업 등 국내 기업 21개사가 참가해 중국 바이어 및 투자자 70여 개사와 500여 건에 달하는 상담을 진행하며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 발전4사·군산대, 전북 해상풍력 인재 양성

중부·남동·서부·남부발전 맞손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등 발전공기업 4사가 전북 지역 해상풍력 산업의 미래를 이끌 전문 인재 양성과 기술 고도화를 위해 국립군산대학교와 손을 맞잡았다.

중부발전은 발전공기업 4사를 대표해 지난 12일 군산대 대학본부에서 군산대학교와 해상풍력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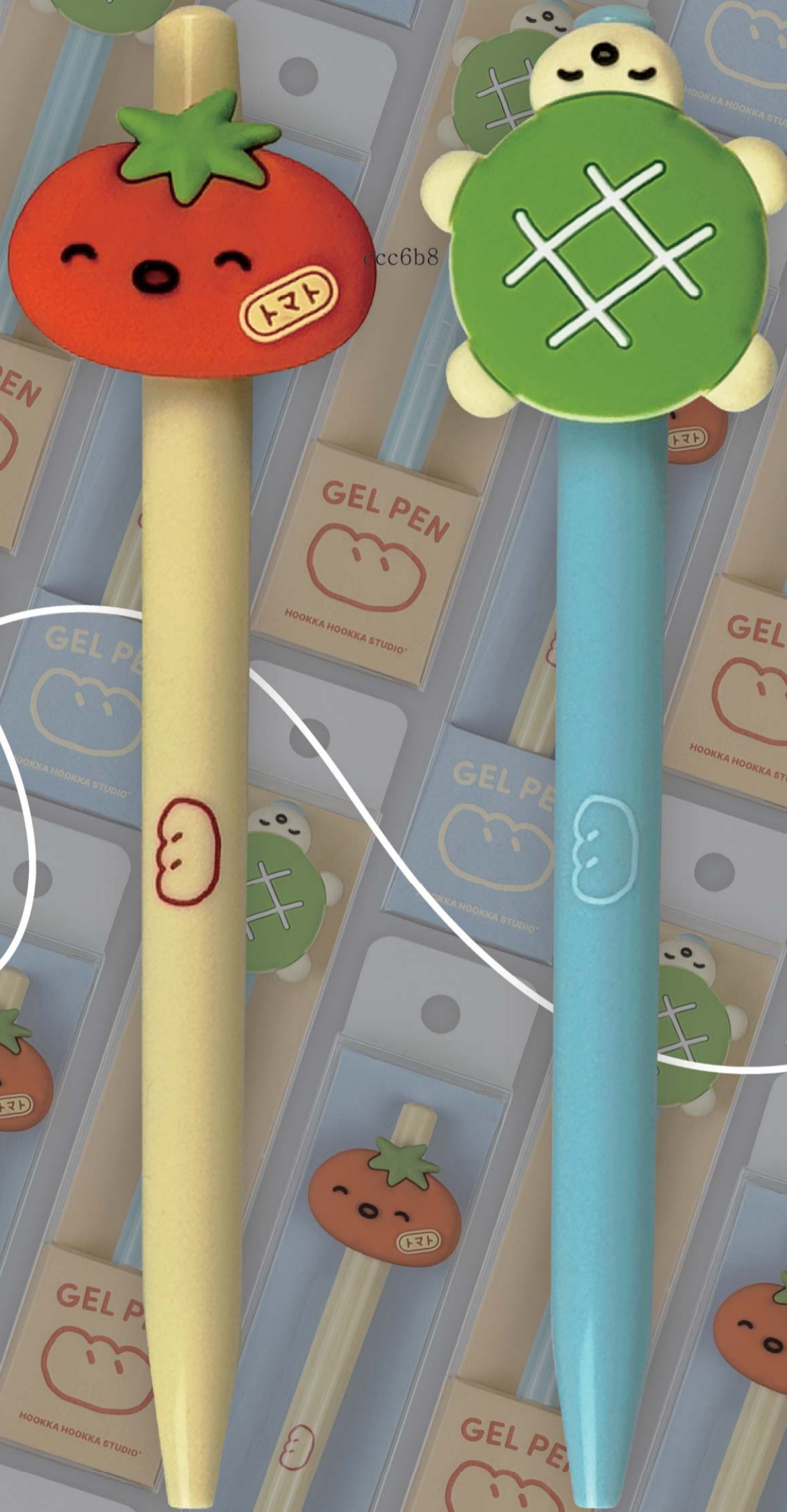
이번 협약은 전북 지역 해상풍력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인적·물적 토대를 마련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해상풍력 전문 교육과정 공

동 개발 및 운영 ▲학생 인턴십 및 취업 지원 등 산학협력 프로그램 추진 ▲해상풍력 공동 연구 및 시설·장비 공동 활용 등 인적·물적 교류 ▲전북 지역 해상풍력 산업 진흥을 위한 상생 모델 구축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군산대는 네덜란드 델프트 공대(TU Delft)와 덴마크 공대(DTU)처럼 세계적 수준의 해상풍력 전문 인력 양성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포부다. 현재 대학 내 ‘G-WIND 혁신연구센터’를 통해 초대용량 풍력발전시스템 기술 인재를 육성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교내 연구 인프라를 산업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 GEL PEN



**HOOKKA HOOKKA STUDIO®**

후카후카스튜디오 | ふかふか スタジオ | 呼卡呼卡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 후카후카스튜디오 ] 에서 다양한 귀여움을 만나보세요!

공식홈페이지 구경하기 ▼



인스타그램 @hookka.hookka.studio

공식 홈페이지 ddada.kr

후카후카스튜디오 ▼

# 글로벌 인증 쉬워진다... 경북도, 푸드테크 기업 지원 확대

농식품부 공모... 국비 5억 확보  
윈스톱 시험·인증 체계 마련 예정  
NSF 인증시험기관 기능 강화

경북도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6년도 글로벌 K-푸드테크 기업 육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5억원 확보했다.

도는 이를 바탕으로 총 10억원 규모의 국제인증 분석 장비를 확충하고, 조리 로봇 등 식품기기의 소재 평가부터 NSF 등 해외 인증까지 지원하는 윈스톱 시험·인증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은 지난 2024년부터 추진 중인 '식품로봇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사업의 후속 성과다. 기존 인증 인프라에 첨단 소재 분석 기능을 추가해 국내 푸드테크 기업들의 해외 진출 지원 기능을 강화하게 됐다.

경북도는 총사업비 155억원 규모의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내 조성 중인 식품로봇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전경.

'식품로봇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이며, 오는 7월 포항융합 기술산업지구 내 연구지원센터 준공을 앞두고 있다.

또 지난해 7월 NSF International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아시아 최초 NSF 인증시험기관을 개소하며 국제 인증 기반을 구축했다.

NSF 인증은 미국 상업용 식품시설 수출 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국제 공인

인증이다. 기존에는 국내 기업들이 인증을 받기 위해 장비를 미국 본사로 보내야 해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다.

하지만 NSF 인증기관 유치 이후 인증 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됐고, 비용도 기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경북도는 설명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복합환경 기계적 특성 분석기는 실제 주방과 조리 환경을 구현해 식품로봇과 조리기기 소재의 내

구성을 정밀 평가하는 장비다. NSF 등 국제 표준 규격 시험과 직접 연계된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포항 현지에서 소재 물성 평가부터 최종 인증 취득까지 전 주기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북도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KS·K OROS 표준 개발과 국내외 인증(KCs·UL 등), 성능평가와 연계한 전주기 시험 인증 체계 구축을 위한 '푸드테크 로봇 시험인증평가센터' 기반 구축도 국가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아시아 최초 NSF 시험인증기관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기업들에 정밀한 시험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첨단 장비 확충과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경북이 글로벌 푸드테크 산업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metroseoul.co.kr



metro

## 지역 이모저모

### 부산시

#### 낙동강하구 팸투어 개최

부산시는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환경·생태·조경 분야 전문가를 초청한 현장 팸투어를 2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팸투어에는 조경진 서울대 교수, 김영민 서울시립대 교수, 최송현 부산대 교수 등 학계와 언론, 시민단체 전문가 17명이 참여한다.

첫날에는 부산역 일원에서 국가도시공원 추진 현황과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지정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논의한다. 둘째 날에는 을숙도 일원에서 야생동물 보호 현장과 생태 환경을 둘러보고 부산현대미술관과 아미산 전망대를 방문해 낙동강하구의 생태적 가치를 점검한다.

/부산=이도식 기자

### 울산시

####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확대

울산시는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들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이 기존 51개 품목에서 60개 품목으로 대폭 늘어났다고 밝혔다.

추가 답례품은 가공식품 7개 품목, 공예품 1개 품목, 문화관광 1개 품목 등으로, 독창적인 디저트류와 건강 오일 등 가공식품부터 지역 내 폐활용용미술(핑크아트) 전시·체험 상품까지 선택 품을 넓혔다. 기존 농축수산물 중심에서 벗어나 기부자의 변화하는 수요와 최신 추세를 적극 반영했다.

기부자들의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키고 지역 소상공인과 관광 산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 완도군

#### "섬 여행 반값에 하세요"

전남 완도군은 19일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섬 여행객 반값 운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청산도, 여서도, 노화도(넙도), 소안도, 보길도를 방문하는 일반 관광객으로 터미널 이용료나 차량 운임은 제외한 여행객 운임비 50%를 지원한다.

지난해에도 31일 동안 4만1810명에게 2억 2000여만원의 운임비를 지원해 섬 관광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다. 올해는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해 더 많은 관광객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완도(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 구미시

#### 반도체부품 제조 시험장 구축

경북 구미국가1산업단지에 반도체부품 제조·검증 시험장이 들어선다.

시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400억원을 들여 구미시 공단동 국가1산업단지 '반도체 장비 챔버용 소재부품 제조 및 검증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내 유일 세라믹 소재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세라믹기술원(KICET)이 주관하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IL), 한국반도체산업협회(KSIA), 구미전자정보기술원(GERI)이 참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구미(경북)=김준한 기자

## 충남도, 혁신도시 활성화 '신호탄'

복합혁신센터 건립 사업 본격화  
2028년까지 사업비 250억 투입

충남도가 충남혁신도시 '1호 국비 사업'인 복합혁신센터 건립 사업을 본격화하며 혁신도시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 사업 무산 위기를 넘고 국비를 확보하면서 장기간 답보 상태였던 충남혁신도시 사업의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충남도는 충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에 최근 착수했다고 밝혔다.

복합혁신센터는 혁신도시법에 따른 충남혁신도시 첫 국비 사업으로, 예산 보성 초등학교 인근 내포신도시 커뮤니티 부지에 조성하는 복합 공공시설이다.

센터는 부지면적 6034㎡에 이상 3층, 연면적 4100㎡ 규모로 건립하며, 총사업비 250억원을 투입해 2028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내부에는 영유아·청소년 시설과 교육·창의 공간, 혁신도시관리본부 사무실 등이 들어선다.

도는 내년까지 설계를 마무리한 뒤 공사에 착수해 2028년 준공, 2029년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충남혁신도시는 2020년 10월 지정 이후 5년 넘게 공공기관 이전 등 핵심 사업이 가시화되지 못했다. 이번 복합혁신센터 사업 역시 2024년 설계비 5억 원을 확보했지만,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미지정으로 국비 교부가 부류되며 한때 무산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이에 도는 충남혁신도시가 타 혁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를 설득했고, 정부의 국토균형성장 기조와 맞물려 국비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충남=양대승 기자 zzica@

## 포항시 "도심 속 자연 누려보세요"

학산공원 정식 개방

포항시가 도심 속 녹색 휴식공간으로 조성한 학산공원을 18일 시민들에게 정식 개방했다.

학산공원은 환호공원에 이어 지역 내 두 번째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된 도심공원이다. 장기간 미집행 상태로 남아 있던 부지를 대규모 복합문화공원으로 조성해 도심 녹지 확충과 생활형 문화 공간 조성 효과를 동시에 거두게 됐다.

이번 사업에는 공원 조성비 300억 원과 보상비 472억 원 등 총 772억 원이 투입됐다. 전액 민간자본으로 사업이 추진돼 시 재정 부담 없이 대규모 녹지 공간을 확보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더한다.

학산공원은 학산천 생태하천과 철길 숲 인근에 위치해 기존 도심 녹지축과의 연계성을 높였다.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녹색 생태 네트워크 역할도 기대된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포항시 학산공원 전경.

공원 내에는 너른마당과 체육센터, 궁도장, 무장애놀이터, 사계정원, 어울림마당, 오희공원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섰다. 어린이부터 노년층까지 전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생활형 휴식공간으로 꾸며졌다.

특히 공원 중심부인 너른마당에는 겨울 연못과 폭포, 잔디광장이 조성돼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경사면 곳곳에는 꽃잔디를 심어 계절감을 더했다.

## 경북도, 울릉 체류형 관광기반 조성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연계

경북도가 18~19일 울릉군을 방문해 울릉도 체류형 관광기반 조성을 위한 간담회와 민간투자사업 현장 컨설팅을 진행했다.

지난 18일 울릉군청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경북도 경제혁신추진단과 (사)지역활성화투자개발원, 울릉군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경북도는 울릉군 북면 일원에 건설을 추진 중인 280실 규모의 민간 호텔·리조트를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와 연계해 울릉도의 대표 체류형 기반시설로 육성할 계획이다.

/경북=김준한 기자

## 계곡·원시림 품은 영양... 피서지로 '각광'

차박·캠핑 등 성지 입소문

유독 뜨거운 것으로 예상되는 올여름, 북적이는 유명 관광지를 벗어나 진정한 '쉼'을 찾는 이들에게 영양군이 주목받고 있다. 영양은 일월산과 반변천이 빚어낸 원시 계곡과 때 묻지 않은 자연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차박과 캠핑의 성지로 불린다. 영양의 구석구석 숨겨진 명소를 코스별로 소개한다.

영양읍으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무창천이 반긴다. 대천리에서 양구리에 이르는 구간 중 화천리와 무창리는 이미 아는 사람들만 아는 피서 명당이다. 이곳에서 자리를 잡았다면 반드시 영양맹동 산 풍력발전단지를 둘러야 한다. 계곡물은 없지만, 한여름에도 몸이 날아갈 듯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더위를 한순간에 잊게 해준다.

천렵의 즐거움을 느끼고 싶다면 반변천 상원리가 제격이다. 물이 깊어 물놀이에는 주의가 필요하지만, 골뱅이와 민물고기가 풍부해 최고의 휴양지로 손꼽힌다. 인근 곡강리는 텐트를 치기에 적합한 노자가 많아 캠핑들에게 인기가 높다.



일월산 선녀탕 모습.

일월면과 수비면 경계에 위치한 섬촌리는 반변천 곳곳에 차박지와 물놀이장이 산재해 있어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 안성맞춤이다.

더 깊은 자연을 원한다면 영양군이 자랑하는 송하천과 대신골을 추천한다. 특히 송하리와 죽파리 경계인 대신골 입구는 차박의 성지이며, 기산리 방향으로 이어지는 구간은 텐트 하나로 원시림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인근에는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영양 자작나무숲이 있어 이국적인 풍경까지 더해준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 K-푸드 ‘모디슈머’ 열풍... 글로벌 메가히트 상품 진화

(Modify+ Consumer 합성어)

자국 식문화 반영 등 재해석 활발  
식품기업, 레시피·라인업 다변화  
신제품 봇물... 매출 상승 이어져

글로벌 시장에서 K-푸드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해외 소비자들 사이에서 한국 음식을 단순 수용하는 것을 넘어 자국 식문화 맥락에 맞게 적극적으로 재해석해 소비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데이터 플랫폼 오픈서베이가 발간한 'K-푸드 트렌드 리포트 2026' (서울 내 거주하는 46개국 국적의 외국인 대학(원)생 100명 대상)에 따르면, 한국 식문화를 깊게 이해하고 있는 외국인 소비자들은 K-푸드를 자신들에게 익숙한 원재료와 식감의 언어로 받아들여 소비하고 있었다.

### ◆ 기후·문화적 성향에 맞춰 재정의

외국인들에게 K-스낵은 더 이상 낯선 이국의 간식이 아니다. 이들은 한국의 전통 과자나 대표 스낵을 자국에 익숙한 조리법과 원재료에 빚대어 이해하고 있다.

리포트에 따르면 전통 과자인 '약과'는 서구권 소비자들에게 캐러멜라이징된 튀김 쿠키(Caramelized deep-fried cookies)나 '꿀맛이 나는 페이스트리'처럼 친



러시아 현지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초코파이.

숙하면서도 독특한 질감의 디저트로 묘사됐다.

한국의 대표 스낵인 '초코파이' 역시 마시멜로와 초콜릿이 결합해 에너지를 주는 부드럽고 만족스러운 디저트'로 자국 언어에 맞춰 재정의되어 소비되는 양상을 보였다.

실제로 오리온은 이러한 글로벌 소비자의 인식에 맞춰 해외 시장에서 현지 소비자의 취향과 기후, 문화적 배경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레시피와 라인업을 다변화해 온 전략으로 매출을 끌어올렸다.

### ◆ 라면, '모디슈머' 경향 뚜렷

글로벌 메가 히트 상품인 라면 영역에서는 모디슈머(Modify+Consumer) 경

향이 가장 뚜렷하게 관측됐다.

조사에 따르면, 라면을 제품 설명서에 적힌 그대로 조리하는 외국인은 10명 중 4명 꼴인 38.1%에 불과했다. 나머지 61.9%의 응답자는 기본 조리법에 재료를 추가하거나(52.4%), 자신만의 방식대로 크게 변형해(31.0%) 즐기고 있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국물을 건어내고 유제품을 섞어 부드럽게 즐기는 '크리미(Creamy)' 조리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글로벌 모디슈머들의 움직임은 식품 기업들의 메가 히트 신제품 탄생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농심은 신라면에 우유와 치즈를 넣어 꾸덕하게 끓



정정원의 글로벌 브랜드 오프드(O'Food) 소스.

여 먹는 모디슈머 레시피인 '신라면 투움바'에서 착안해 '신라면 툼바'를 정식 출시했다. 국물 없이 파스타처럼 즐기는 K-라면에 열광하는 글로벌 트렌드를 정확히 저격한 것이다.

농심은 최근 토마토 소스와 크림의 조합으로 전 세계인에게 가장 대중적인 파스타 품목을 구현한 '신라면 로제'까지 잇따라 선보이며 라인업을 강화했다.

### ◆ K-소스 인기... CJ·대상, 적극 대응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K-소스의 확장 가능성도 라면의 '파스타화' 트렌드와 궤를 같이했다. 한국식 소스나 양념을 활용하고 싶은 음식으로 전 권역을 통틀어 '면과 파스타(54.3%)'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

했다.

가장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소스(1순위)로는 전체 응답자의 40.0%가 '간장'을 꼽았으며, '고추장(28.0%)'과 '된장(15.0%)'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서구권의 경우 간장(43.6%)에 대한 선호가 고추장(20.5%)보다 두 배 이상 압도적으로 높았던 반면, 아시아권은 한국 특유의 고추장(41.3%) 활용도를 가장 높게 평가해 권역별 미각 지도의 차이를 드러냈다.

CJ제일제당은 대표 브랜드 '비비고'를 앞세워 고추장을 서구식 핫소스 형태로 재해석한 '고추장 소스'를 글로벌 출시하며 디핑 소스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대상 역시 '청정원 오프드(O'Food)'를 통해 해외 소비자들이 파스타, 바비큐, 딥소스 등으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매운맛 강도를 조절한 '글로벌 고추장·쌈장' 라인업을 확대하며 K-소스 대중화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 식품의 고유성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현지 소비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식문화 맥락에 맞춰 제품을 변형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metro

## CJ웰케아, 전립선 건강식품 '원료 국산화' 앞장

'SHPro' 소재 산업화 성과 공유  
전립선 증상점수 개선·잔뇨감 완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원료 국산화'가 새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수입 추출물에 의존하던 전립선 건강 제품군에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국산 복합 추출물이 상용화되면서, 산업계와 농가, 연구기관이 함께 묶이는 새로운 상생 모델이 가시화되는 모습이다.

CJ웰케아는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협력해 개발한 전립선 건강 개별인정형 원료 'SHPro(참당귀황기추출 복합물)'를 적용한 '전립선 참당귀황기프리미엄'을 선보이며 시장 공략에 나섰다. 이 원료는 국내산 참당귀와 황기를 기반으로 공동 연구를 통해 개발된 소재로,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전립선 건강기능성을 인정받았다.

지난 18일 충북 오송 서흥 공장에서



CJ웰케아 윤상배 대표(왼쪽),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대현 원장, 서흥 박금덕 대표가 기념촬영하고 있다.

열린 '원료국산화 및 산업화 제고를 위한 민관 협력 결연식'에서는 해당 소재의 산업화 성과가 공유됐다. 이 자리에는 CJ웰케아 윤상배 대표,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대현 원장, 서흥 박금덕 대표 등이 참석해 국산 신소재의 사업화 확대와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을 논의했다.

SHPro는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IPSS) 개선과 잔뇨감 완화 효과를 확인했다. 제품에는 이 복합 추출물과 함께 옥타코사놀, 아연, 마그네슘 등 기능성 원료 8종이 더해져 중장년 남성의 활력과 에너지 대사를 함께 고려한 점이 특징이다.

이번 제품화는 전립선 건강기능식품시

장이 그간 수입 원료 중심으로 형성돼 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가치평가에 따르면 해당 기술은 약 498억원의 기술 가치와 110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지닌 것으로 분석됐다.

CJ웰케아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 국내산 참당귀와 황기를 원료로 사용함으로써 관련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기업과 농가, 연구기관이 연결되는 구조를 구축했다. 업계에서는 기능성 입증과 함께 원료 국산화, 농가 소득 연계, 산업화 확장까지 이어지는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

CJ웰케아 관계자는 "전립선 참당귀황기프리미엄은 식약처가 인정한 참당귀황기추출복합물 적용 제품으로 희소성을 갖춘 사례"라며 "국산 원료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내수 확대는 물론 수출 시장 진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 신제품



### 하림, 소스닭 가슴살 3종

종합식품기업 하림이 별도 조리 없이 바로 먹을 수 있는 통조림 형태의 '소스닭 가슴살(사진)' 3종을 출시했다.

닭가슴살에 소스를 더해 밥과 함께 간편하게 한 끼로 소비할 수 있도록 한 제품으로, 보관성과 휴대성을 높인 점이 특징이다.

신제품은 국내산 닭가슴살을 잘게 찢어 특제 소스를 입힌 뒤 통조림에 담았다. 뚜껑만 열면 바로 섭취할 수 있어 조리 과정이 필요 없고, 한 개(135g)당 단백질 14g을 담았다. 참기름, 달걀프라이, 김가루 등을 곁들여 간편식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맛은 '고추나라 맛다시', '짜장', '마라' 등 3종이다. /신원선 기자

## LF몰, '리뷰 TF' 출범... AI 기능 고도화

'AI 리뷰 초안 받기' 등 경쟁력 강화

LF가 운영하는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전문몰 LF몰이 리뷰 경쟁력 강화에 본격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LF몰은 리뷰의 양적·질적 성장이 플랫폼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고 판단하고, 전사 차원의 '리뷰 TF(Task Force)'를 출범시켜 관련 기능 고도화에 착수했다.

LF몰은 고객이 느끼는 심리적·물리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쉽고 자연스럽게 리뷰를 남길 수 있도록 리뷰 작성 환경 전반을 개편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AI 리뷰 초안 받

기' 기능이다. 고객이 별점과 사이즈, 색상 등 만족도 항목을 선택하면 AI가 이를 분석해 리뷰 초안을 자동으로 생성한다. 고객은 제안된 문구를 그대로 활용하거나 필요한 부분만 수정해 간편하게 리뷰를 등록할 수 있어 리뷰 작성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LF몰은 리뷰 기능 개선을 기념해 오는 6월 22일까지 'RE:BACK' 기획전을 진행한다. 행사 기간 내 구매 후 리뷰를 작성한 고객 중 100명을 추첨해 LF몰 1만 마일리지를 지급하며, 생애 첫 리뷰 작성 고객 100명에게는 1천 마일리지를 제공한다. /김서현 기자 seoh@

## 하이트진로, '센텀맥주축제' 공식 후원

테라 부스 상시운영... 15종 굿즈 판매

하이트진로가 부산을 대표하는 맥주 행사인 '센텀맥주축제' 후원사로 참여한다고 19일 밝혔다.

대표 맥주 브랜드 '테라'가 공식 스폰서로 나서 현장에서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를 운영하며 브랜드 존재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하이트진로는 2013년부터 코로나19 기간을 제외하고 매년 축제를 후원해 왔으며, 올해로 11번째 공식 후원이다.

행사장에는 테라 생맥주 부스가 상시 운영된다. 방문객 참여형 프로그램도 대

폭 강화했다. '썸맥자격증' 발급 이벤트를 비롯해 타투스티커 증정, 테라 및 두꺼비 포드존이 마련되며, 웨이브 레이스-닌타 스테파-7초 타이머 게임 등 몸으로 즐기는 플레이존을 통해 체험형 콘텐츠를 선호하는 MZ세대와의 접점을 넓힌다는 전략이다. 스푸너, 전용 잔, 파규어, 열쇠고리 등 굿즈 15종도 현장에서 판매한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부산의 대표 여름 축제에서 테라가 공식 후원사로 참여하게 돼 의미가 크다"며 "소비자들이 현장에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 롯데칠성음료, 제로소주 '새로 오미자'

롯데칠성음료는 제로수거소주 '새로'에 경북 문경 산 오미자 과즙을 더한 '새로 오미자(사진)'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알코올 도수는 12도로, 오미자 특유의 상큼하고 쌉쌀한 풍미를 더해 소주 특유의 쓴맛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내용물은 연한 붉은빛을 띠며, 얼음과 함께 마시는 여름철 음용을 겨냥했다.

제품 라벨에는 브랜드 캐릭터 '새로구미'와 오미자 이미지를 담아 기존 플레이버 제품과 유사한 구도를 유지했다.



/신원선 기자

# AI·스마트물류 무장... 약국, 유통 혁신 나선다

GC녹십자그룹 'GC메디아이' AI 기반 의료 운영체제 기업 전환 '유비스트 OTC'로 시장 분석

한미약품그룹 계열사 '온라인팜' 온라인 HMP·자체 브랜드 운영 대웅그룹, 블록형 거점 도매 추진 자체개발 배송 전용 시스템 등 도입



신개념 도심형 큐레이션 대형 약국 '옵티마 웰니스 뮤지엄 약국' 종각점 전경. /옵티마

최근 들어 국내 유통 시장에서 약국이 관광 상권 핵심 요소로 부상하거나 대형화를 이루려는 등 큰 변화가 일고 있다. 제약사들 역시 약국가 유통망을 잡기 위해 전방위적인 체질 개선에 나섰다. 의약품 공급에 머물지 않고, 인공지능(AI) 데이터, 자체 브랜드(PB), 스마트 물류 등을 무기로 시장을 선점한다는 전략이다. 19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GC녹십자그룹은 데이터 기반 생태계를 조성한다. 병·의원을 중심으로 약국, 제약사, 보험·금융, 헬스케어 기업 등 다양한 주체를 연결하는 데 중점을 둔다. GC녹십자그룹의 GC메디아이는 인공지능 기반 의료 운영체제 기업으로 전환하며 각종 데이터를 고도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반의약품(OTC) 시장에서 활용 가능한 분석 프로그램 '유비스트 OTC'를 출시했다. 일반의약품 판매 흐름, 경쟁사 가격 구조, 지역별 또는 소비자별 수요 특성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전국 3700여 곳

약국 결제단말기에서 수집한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세부 영업 전략을 수립하도록 돕는다. GC녹십자그룹은 이러한 플랫폼 구축을 통해 신규 수익 구조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GC메디아이는 올해 연결 기준 135억원의 영업이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년 75억원 대비 약 80%에 달하는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미약품그룹의 의약품 도매 부문 계열사인 온라인팜은 공식 온라인 거점 창구 HMP물과 자체 브랜드를 운영하며 유통 시장에서 입지를 확보한다. 드링크, 기능성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약국 전용으로 지속 선보이고 있다. 약국이 조제는 물론 헬스앤뷰티 스토어 기능을 갖춰 나가는 데 발맞춘다는 복안이다. 온라인팜은 올해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한 299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중 전문의약품(ETC) 매출 비중이 77.1%로 가장 크며 일반의약품(OTC) 매출 비중은 8.7% 수준이다. 대웅그룹은 블록형 거점 도매를 추진한다. 기존 약국의 폐인 포인트(불편함)를 해결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실제 물류 현장에서 의약품 품질, 배송 안정성, 권역별 재고 파악 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물류 기준을 엄격하게 설치하고 이를 충족하는 파트너를 선정할 계획이다. 대웅이 자체 개발한 의약품 배송 전용 시스템(TMS), 인공지능 품질 방지 시스템(AIDCM) 등도 도입한다. 1일 2배송, 주문 3시간 내 긴급배송, 새벽배송 등 다양한 형태의 배송으로 약국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대웅 측은 "책임 경영 강화의 일환"이라며 "품질 대응 불균형, 배송 불확실성 등을 개선하는 불가피한 물류 혁신"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제약사 주도의 공급망 효율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향후 과제로 남았다. 현재 한국약품유통협회, 대한약사회 등 전통 도매 업계는 대웅의 블록형 거점 도매 추진에 반대하고 있다. 특정 유통경로가 강제되면서 불공정 시장이 형성되고 독점적 유통 체계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내 한 유통 업계 관계자는 "약국 역시 주요 채널로 고도화되면 브랜드를 내놓는 기업에선 마케팅부터 스마트 물류까지 소빙 환경 전반을 아우르는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한 외국인 전용 결제 플랫폼과 우패스를 전개하는 오렌지스퀘어에 따르면, 한국 약국은 K뷰티 흥행과 함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의 약국 결제 증가율은 2024년 대비 2025년 188% 커졌다. 또 창고형 약국도 늘고 있다. 옵티마 웰니스 뮤지엄 약국의 경우 지난해 9월과 12월 각각 강남점, 종각점 등이 연달아 문을 열었다. 올해 2월엔 분당 서현점을 추가했다. 최근 개점한 르메디 약국 역시 메디슨, 뷰티, 바디를 복합적으로 선보이는 공간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 애경산업 '에이지투웨니스' 시그니처 에센스 팩트 올리브영서 만나보세요



애경산업의 스킨 퍼스트 메이크업 브랜드 에이지투웨니스(AGE20'S)가 '에센스 팩트'라는 독보적인 카테고리 루티 시장 내 입지를 다진 데 이어 유통망 확장을 본격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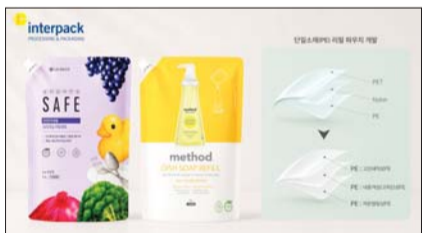
애경산업은 국내 최대 뷰티 헬스앤뷰티 스토어 CJ올리브영에서 브랜드 대표 제품 '시그니처 에센스 팩트 인텐스 커버' (사진)를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이 제품은 메이크업 제품 파운데이션과 스킨케어 제품 에센스를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브랜드 특허 기술인 '에센스 포켓 기술'을 적용해 고체 파운데이션이 에센스를 71% 함유한다. /이청하 기자

## 아모레퍼시픽 피부장수 미생물 연구 스킨케어 개발 박차

아모레퍼시픽이 미생물학 분야 연구에서 성과를 거두며 피부장수(롱제비티)를 위한 스킨케어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아모레퍼시픽은 젊고 건강한 피부 환경에서 나타나는 대사물질 '페닐락트산(PLA)'에 대한 연구결과를 지난 4월 국제 학술지 '인터내셔널 마이크로바이오횰지'에 게재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연구는 한국인 여성 피부에서 피부와 공존하는 미생물, 피부 표면 대사체 등을 통합 분석했다. 피부 미생물 조성 변화 양상, 피부 장벽·면역·노화와의 상관성 등을 규명했다. 또 세포 실험을 통해 페닐락트산(PLA)이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콜라겐 분해효소 활성을 억제하는 것을 확인했다. 콜라겐은 피부 탄력 유지에 중요한 요소인 만큼, 피부 미생물이 피부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입증한 것이다. /이청하 기자

# “쉬운 재활용, 개선된 내구성”... 단일소재 포장지 개발

LG생활건강, 친환경 경영 강화 초박막 포장필름 '유니커블' 적용



LG생활건강의 브랜드 제품은 폴리에틸렌(PE) 단일 소재 파우치를 구성하고 있다. /LG생활건강

LG생활건강이 고기능성 혁신 소재 개발에 성공하면서 브랜드 전반에서 친환경 경영을 강화한다. LG생활건강은 재활용이 쉬우면서도 내구성을 개선한 포장재를 19일 공개했다. 기존 복합 소재를 폴리에틸렌(PE) 단일 소재로 전환해 분리 배출 과정을 줄이는데 중점을 뒀다.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단일 소재로는 세계 최고 수준인 14마이크로미터(μm) 두께를 구현한 초박막 포장필름 소재 '유니커블'을 적용했다. 기존 복합 재질의 경우, 내구성 보안을 위해 여러 재질로 설계돼 두께가 두꺼우며 재활용도 어렵다. 실제로 복합 재질의 재활용 등급은 '보통', 단일 소재는 '우수'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따라 LG생활건강은 2023년에도 국내 생활용품 업계 최초로 폴리에틸렌

(PE) 단일 소재 포장 파우치를 '세이프 천 연미네탈 주방세제 리필 1리터(L)'에 도입한 바 있다. 현재는 '메소드 주방세제 리필 1리터(L)'에 쓰이고 있다. LG생활건강은 이번에 개발한 포장재를 다각도에서 상용화하며 플라스틱 순환 경제 전략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재활용이 쉬운 패키지를 확대하면서 제품 지속 가능성과 사용 경험을 동시에 확보하는 친환경 솔루션을 지속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 롯데컬처웍스, 이머시브 뮤지컬로 공간 실험

'인사이드 더 플레이: 룰렛' 공연 상영관 스크린과 음향, 로비 동선까지 공연의 일부로 끌어들이었다. 극장이 더 이상 '영화를 보는 곳'에 머물지 않고, 관객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무대로 확장되고 있다. 롯데컬처웍스는 몰입·체험형 공연 브랜드 '인사이드 더 플레이'의 신작 '인사이드 더 플레이: 룰렛'이 7월 9일부터 서울 도곡동 '아트스테이지 도곡'에서 막을 올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작품은 흥행성과 작품성을 인정 받은 이머시브 뮤지컬 '룰렛'을 영화관 환경에 맞춰 새롭게 각색한 프로젝트다. 초·재연 당시 평균 객석 점유율 95%를 기록한 원작의 강점을 유지하면서도, 상영관의 구조와 장비 특성을 반영해 안무와 동선, 연출을 전면 재구성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공연이 펼쳐지는 '아트스테이지 도곡'은 롯데시네마 도곡 6층에 마련된 공간으로 고품질 음향장비와 조명 시스템, 대형 스크린을 공연 연출에 적극 활용한다. 관객은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체험하기보다, 극 중 주인공 '포우'의 대저택 안으로 들어온 듯한 공간감을 경험하게 된다. 롯데컬처웍스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영화관의 다목적화 가능성을 실험한다는 구상이다. 검증된 콘텐츠를 결합해 체험형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의 전환을 시도하는 셈이다. '인사이드 더 플레이: 룰렛'은 7월 9일부터 10월 11일까지 아트스테이지 도곡에서 공연된다. 티켓 예매는 5월 27일 오후 3시부터 티켓링크에서 단독 오픈되며, 자세한 내용은 롯데시네마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청하 기자

## 지씨셀 'AB-201', 첫 환자 투여 개시

고형암 표적 'CAR-NK 세포치료제' 지씨셀이 고형암을 표적하는 CAR-NK 세포치료제 개발을 본격화한다. 지씨셀은 세브란스병원 정민규 교수 연구팀이 진행하는 CAR-NK 세포치료제 'AB-201'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서 첫 환자 투여를 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임상인 진행성 HER2 양성 위암 및 위식도점막부암 환자에서 AB-201 안전성, 초기 항종양 활성 등을 평가한다. AB-201은 표적 세포치료제로 HER2를 과발현하는 고형암 세포를 선택적으로 공격하도록 설계됐으며, 기존 치료 이후에도 치료 옵션이 제한적인 HER2 양성 고형암 환자들을 위한 새로운 면역세포치료 접근법으로 개발되고 있다. 특히 지씨셀의 동종 CAR-NK 플랫폼 기술이 집약됐다. 지씨셀은 이번 첫 환자

투여를 통해 CAR-NK 플랫폼의 고형암 적용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검증하게 됐다. 향후 고형암 분야 파이프라인 확대 및 글로벌 공동개발 논의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세브란스병원 정민규 교수는 "HER2 양성 위암 및 위식도점막부암은 표준 치료 이후에도 미충족 의료수요가 높은 영역"이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CAR-NK 세포치료제의 안전성과 임상적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고형암 분야에서의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성용 지씨셀 대표는 "이번 첫 환자 투여를 계기로 HER2 양성 고형암 환자를 위한 새로운 면역세포치료 접근법 개발에 속도를 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포치료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청하 기자

## 컬리 11주년 기념 '벌쓰워크' 최대 60% 할인 판매

컬리가 오는 25일까지 11주년 '벌쓰워크(Birth Week)' 기획전을 진행한다. 19일 밝혔다. 서비스 오픈 11주년을 맞아 이번 행사에서는 1300여 개 상품을 최대 60% 할인 판매한다. 카테고리별 베스트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세일어택'과 시간대별로 새로운 쿠폰이 열리는 '타임어택'도 선보인다. '세일어택'에서는 컬리 대표 품목 11종을 파격적인 가격에 선착순으로 제공하는 '11주년 시그니처' 코너를 선보인다. '타임어택' 이벤트는 매일 오전 11시부터 '60분 타임딜' 코너에서 비식품 카테고리를 특별가로 판매한다. 오후 12시부터 1시간 내 사용 가능한 최대 90% 할인 쿠폰을 선착순 지급하고, 오후 6시에는 ID 당 하루 한 번 참여할 수 있는 990원딜을 선보인다. /김서현 기자 seoh@

# 타기 직전까지 끌어올린 반전의 맛

셰프의 킥  
브라운 버터 오일



캐러멜라이즈드  
에니언

벤트치즈번스



스모크  
비프패티

By chef 네비딱한 천재

# 벤트비프버거

단품 8,800원 | 세트 10,700원

LOTTERIA™

상기 이미지는 연출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CJ프레시웨이, 미래세대와 기후해법 모색**

CJ프레시웨이가 미래세대와 함께 사업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탄소중립 방안을 찾는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했다. CJ프레시웨이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보전원과 협력해 '2026년 미래세대 기후행동 오픈 이노베이션'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CJ프레시웨이

**26. 5. 18. (월) 15:30 | 연세대학교 경영관 B1동**



**농협은행, 연세대와 농심천심 확산 협력**

NH농협은행은 지난 18일 연세대학교 경영관 응재홀에서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NH투자증권과 함께 '농심천심 실천 및 협동의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범농협의 '농심천심(農心天心) 운동'을 바탕으로 대학과 금융기관이 협력해 우리 농업의 가치와 협동조합 정신을 확산하고, 청년 인재 양성과 ESG·기업윤리 분야 교육 및 연구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아모레를 연계 적금 선택**

Sh수협은행은 내달 금융과 뷰티를 연결한 라이프스타일형 적금 상품인 'Sh쿠폰적금 워드 아모레몰(with Amore Mall)'을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Sh쿠폰적금 워드 아모레몰은 수협은행이 뷰티업계와 처음으로 연계해 선보이는 1년 만기 적금 상품이다. 가입 고객에게 오는 9월 30일까지 아모레퍼시픽 공식 온라인 쇼핑몰인 아모레몰에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Sh수협은행



**이노비즈협회, 나이스디앤비와 기업 글로벌화 지원**

이노비즈협회가 나이스디앤비와 '이노비즈기업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9일 이노비즈협회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AI와 데이터 경제 시대를 맞아 기술혁신 역량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 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이노비즈기업의 글로벌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이노비즈협회

**인사** ◆지식재산처 ◇과장급 승진 △디자인분쟁대응과장 이형원 △한류관광상품심사과장 이성국 △국제특허출원심사팀장 김길수 △의료기술심사과장 구자욱 △반도체소재심사팀장 유철중 ◇과장급 전보 △지식재산인공지능전환추진단장 윤기웅 △혁신행정담당관 이은정 △지식재산보호정책과장 김준경 △지식재산정보정책과장 한규동 △지식재산정보시스템과장 김용웅 △특허심판원 심판장 전승철

**부음** ▲김원화씨 별세, 김주희(인벤티지랩 대표)씨 부친상=19일, 대구파티마병원 장례식장 위빈실 501호, 발인=21일 오전 7시30분, 장지 대구명복공원 /의성군금성면연영. 053-958-9000

# LG전자, 에티오피아 직업훈련 노하우 소말리아에 전수

**UNDP와 청년 기술훈련 협력  
교육과정·운영 노하우 공유  
전기전자·IT 무상교육 모델 확산  
졸업생 전원 사회진출 성과**

LG전자가 에티오피아에서 10년 넘게 운영해 온 직업훈련학교 운영 경험을 소말리아에도 전수한다. 10년 넘게 축적한 전기전자·IT 분야 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아프리카 청년들의 기술 교육과 일자리 지원에 나선다는 취지다.

LG전자는 최근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소재 LG-KOICA 희망직업훈련학교에서 유엔개발계획(UNDP)과 '소말리아 청년 기술훈련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LG전자는 UNDP와 코아카가 소말리아에 새롭게 짓는 직업훈련학교에 LG-KOICA 희망직업훈련학교 교육과정과 운영 노하우를 전수한다. 교육과정과



LG전자가 에티오피아에서 10년 이상 운영해 온 LG-KOICA 희망직업훈련학교의 교육과정과 운영 노하우를 인근 국가인 소말리아에 전수한다. 사진은 에티오피아 LG-KOICA 희망직업훈련학교 학생들이 가전제품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 /LG전자

운영매뉴얼 개발, 졸업생 취업 지원, 교육용 공구 및 테스트 제품 선정 등 직업훈련학교 운영 노하우 전수를 위해 소말리아에서 근무할 강사들의 교육과 LG-KOICA 희망직업훈련학교 운영 시스템 벤치마킹 기회도 제공한다. 에티오피아 LG-KOICA 희망직업

훈련학교는 지난 2014년부터 운영돼 전기전자, IT분야 무상 교육을 제공하며 현지 청년들의 자립을 도와왔다. 이 학교의 누적 졸업생 611명 전원이 취업, 창업을 통해 사회에 진출해 있다.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2020년에는 에티오피아 정부로부터 직업훈련

학교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LG전자는 우수 졸업생에게 LG전자 중아서비스법인의 채용 전환형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고내 창업지원센터를 통해 법률, 마케팅, 사업 관리 등에 관한 실무 교육 및 멘토링도 지원하고 있다. LG-KOICA 희망직업훈련학교는 이러한 성과와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2020년 에티오피아 정부로부터 직업훈련학교 우수사례로도 선정된 바 있다.

LG전자 양승환 에티오피아 지점장은 "10년 이상 에티오피아에서 LG-KOICA 희망직업훈련학교를 운영하면서 얻은 성공 경험을 소말리아에 전파해 아프리카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기업 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 유한양행, 창립 100주년 가족 행사 성료

자녀 백일장·사생대회 개최

유한양행이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며 임직원 가족들과 함께 기업의 뿌리깊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축제의 장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유한양행은 지난 16일 유한대학교와 유한공업고등학교에서 '임직원 자녀 백일장·사생대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임직원과 자녀를 비롯해 유한학원 교직원 가족 등 약 1000여 명이 참여해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이번 대회는 유한양행의 100년 역사와 창업 이념을 다음 세대와 공유하는데 중점을 뒀다. 행사에는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자녀들이 참여해 글과 그림을 통해 창의력과 상상력을 마음껏 펼쳤다.

행사 당일 오전에는 백일장과 사생대회가 진행됐고 오후에는 유한동산과 유일한 박사 기념관 견학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특히 100주년 기념 프로그램은 유한대학교 및 유한공업고등학교의 각과가 운영하는 부스에서 이뤄졌다. /이청하 기자 mlee236@

## JW중외제약, 철결핍성 빈혈 공개강좌

여성 빈혈 조기진단 중요성 강조

JW중외제약은 지난 7일 서울 포스코타워역삼 이벤트홀에서 대한자궁근종선진증학회와 함께 '철결핍성 빈혈 질환'을 주제로 공개강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철결핍성 빈혈 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여성에게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철결핍성 빈혈의 조기 진단과 치료 관리 중요성을 알렸다.

이날 강연에는 용인세브란스병원 어경진 산부인과 교수와 서울성모병원 이성종 산부인과 교수가 연자로 참여했다.

어경진 교수는 철결핍성 빈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과 임상 증상을 설명했다. 특히 피로감, 어지러움, 두통, 집중력 저하 등 일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단순한 컨디션 저하로 여겨질 수 있는 만큼 조기 진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청하 기자

## 여벤협, 여성 스타트업 30개사 발굴·육성

내달 9일까지 참여기업 모집

한국여성벤처협회가 '여성특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할 여성 스타트업을 오는 6월 9일까지 모집한다.

19일 여벤협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창업 7년 미만으로 혁신성장이 가능한 테크 기반 여성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투자 연계형 액셀러레이팅(멘토링, 네트워킹 등)을 지원한다.

여벤협은 올해도 여성 특화 창업기 획자인 리벤처스, 이화여자대학교기술

지주, 젠엑시스, 킹고스프링과 협력해 미래 선도형 유망 여성 초기 스타트업 30개사 이상을 발굴·육성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스타트업은 협약기간내 기업맞춤형 교육·멘토링, 사업화 자금 지원(1000만원 이내), 협력네트워크 등 각 운영기관별 보유하고 있는 특화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지원받는다.

또한, 직접(3개사 이상) 투자부터 스케일업을 위한 연계·후속투자까지 창업기업의 성장단계에 고려한 맞춤형 보육을 초밀착해 지원한다.

/김승호 기자 bada@

## 한화·KAIST, 중학생 우주인재 키운다

1·2학년 대상 내달 12일까지 모집

한화그룹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미래 우주 인재 육성을 위한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우주산업 경쟁이 국가 기술 경쟁력과 직결되는 가운데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전형 프로젝트 교육을 통해 차세대 우주과학 인재 자질을 높인다는 취지다.

한화그룹과 KAIST는 미래형 우주인재 육성 프로그램 '우주의 조약돌' 5기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다음달 12일까지다.

올해 주제는 '대한민국을 위한 우주 기술'이다. 전국 중학교 1·2학년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한화

스페이스 허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우주의 조약돌'은 청소년들이 우주를 주제로 한 상상력과 호기심을 실제 연구 프로젝트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참가 학생들은 KAIST 항공우주공학과 교수진과 석·박사 멘토들의 지도 아래 주제 선정부터 논리 구체화, 결과 도출까지 팀 단위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한다. KAIST에서 실제 진행되는 팀 프로젝트 방식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선발은 1차 에세이 심사와 2차 토론·면접 전형으로 진행된다. 최종 선발 인원은 30명이다.

/원관희 기자 wkh@

## 중견기업계 "산은, 생산적 금융 확대해야"

중견기업 금융지원 확대 요청  
생산적 금융 프로그램 발굴

중견기업계가 한국산업은행에게 중견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여신 규모를 지속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19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산은은 2022년 25조6000억원에서 2024년 전체 자금 공급의 36.7%에 해당하는 32조3000억원까지 중견기업 여신 지원 규모를 꾸준히 늘려왔다"면서 "첨단과 전통, 서비스 분야를 아우르는 미래 성장의 핵심 주체로서 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여신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생산적 금융 프로그램을 발굴,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추진되는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적인 운용을 통해 미래 국가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할 생산적 금융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확고한 계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오른쪽)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에서 박상진 산은 회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 회장은 "글로벌 첨단전략산업 패권 경쟁에 대응해 지난해 출범한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는 혁신기업의 스케일업과 지역 산업 활성화를 견인할 핵심 정책 금융 플랫폼"이라며 "지원 기준과 행정 절차 합리화 등을 통해 펀드의 접근성, 적시성을 제고함으로써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방산 등 첨단전략산업을 넘어, 전통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 전반의 광범위한 혁신을 촉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R HOUSE BRAND GORILLA

# 2026 한국경제, 스페인의 그림자를 떠올리며



**김희석**  
칼럼

십여 년 전 스페인을 여행했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다. 신대륙을 발견한 뒤 스페인은 세계의 금과 은을 빨아들이듯 끌어모았지만, 그 막대한 부를 결국 성당을 치장하고 전쟁을 치르는 데 쏟아부었다. 만약 그 자금이 산업과 기술, 시민의 삶을 키우는 데 쓰였다면 지금의 스페인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지도 모른다.

후대의 시선으로 역사를 단순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 나라가 누린 압도적 호황이 사회 전체의 생산성과 미래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는 스페인의 사례가 잘 보여준다.

옛 스페인의 영화가 더 이상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지금 한국경제는 이른바 'K자형 성장'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전기전자 등 일부 첨단 산업은 세계적인 호황을 누리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기술 경쟁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고, 수출 지표 역시 화려하다. 그러나 그 이면의 풍경은 전혀 다르다. 유통과 건설, 자영업과 부동산 등 내수 산업은 긴 침체의 타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주식시장 역시 마찬가지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넘나드는 초강세장을 연출하고 있지만 시장 전체가 함께 웃고 있는 것은 아니다. 반도체와 일부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지수는 치솟았지만, 상당수 종목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묻는다. "도대체 누구의 호황인가."

최근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요구를 둘러싼 논쟁은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지금 한국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가깝다.

과거 한국 사회의 논쟁은 대체로 "생산이 먼저인가, 분배가 먼저인가"에 집중돼 있었다. 지금의 논쟁은 결이 다르다. "특정 기업의 초과 성과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가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다. 이것은 과거 성장 시대에는 보기 어려웠던 새로운 유형의 분배 갈등이다.

우수한 인재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야 기업 경쟁력이 유지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반면 기업의 성과가 사회 전체의 기반 위에서 가능했던 만큼 일정 부분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역시 무시할 수 없다.

문제는 이런 논쟁이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성과를 얻은 사람들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든 결과"라고 말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사회 전체의 자원이 특정 산업에만 집중된 결과"라고 말한다. 서로의 언어가 달

라지기 시작하면 사회는 쉽게 갈라진다.

K자형 성장의 가장 큰 위험은 바로 여기에 있다. 경제 성장 자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중간층의 붕괴다. 상층은 더 빠르게 올라가고 하층은 버티기조차 어려워질 때, 사회를 지탱하던 중간층은 점점 얇아진다. 중간층이 약해진 사회는 소비도 줄어든다. 공동체의식도 흔들린다. 무엇보다 "노력하면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이 약해진다.

역사를 돌아보면 많은 나라들이 성장의 정점에서 균열을 경험했다. 부 자체가 문제였던 것이 아니다. 문제는 그 부가 사회 전체의 미래로 연결되지 못했을 때였다. 산업의 성과가 새로운 투자와 혁신, 더 넓은 기회로 이어지지 못하면 결국 갈등만 남게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 대립이 아니라 가장 생산적인 논의다. 성과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미래 투자를 어디까지 우선할 것인가, 산업의 과실을 사회 전체의 기회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성숙한 합의가 필요하다.

먼 훗날 누군가 한국을 여행하며 2026년의 한국 경제를 돌아볼 때, 어떤 교훈을 얻게 될까. 특정 산업의 눈부신 성공만 기억하게 될지, 아니면 그 성과를 바탕으로 사회 전체의 미래를 준비했던 지혜로운 시기로 평가하게 될지,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vbkim11@metroseoul.co.kr

## '국민 성장'의 과제



**신하은**  
(자본시장부)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 기조가 유지되면서 자본시장에 돈이 쌓이고 있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침체된 국내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 자체는 분명 의미가 있다. 다만 시장의 온기가 얼마나 넓게 퍼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증시는 오르지만 실물경제의 체감 온도는 여전히 낮고,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실제로 누구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남는다.

정부가 발표한 국민성장펀드의 연간 모집 규모는 6000억원으로, 정부가 손실의 20%까지 원금을 보전해 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개인당 투자 한도가 최대 2억원으로 설정된 만큼 실질적으로는 자금 여력이 있는 투자자가 더 적극적인 가능성이 크다. 약 20%를 서민에게 우선 배정하는 장치가 있지만, 억 단위 목돈을 가진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실상 자금 여유가 있는 고소득층이 접근하기 쉽다는 점에서 실제 혜택 범위가 기대만큼 넓을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를 붙잡기 위한 국내시장복귀계획(RIA)의 효과도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보여 주고 있다. 누적 가입 계좌 수는 첫날 1만 7965좌에서 지난 15일 기준 약 23만 5000좌까지 개설되며 관심이 몰리는 듯했지만, 실질적인 잔고는 1조 9600억원으로 아직까지 실수요는 제한적이다. 매도 금액 한도가 5000만원으로 제한돼 있는 점과 국내 주식 보유의무 기간이 약 1년

이라는 점에서 부담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RIA는 원·달러 환율 안정과 자본시장 활성화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계획이지만, 사실상 대내외 환경으로 인해 환율도 잡지 못하고 있다. 19일에도 환율은 1490원대에 머물러 있고, 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 보관액도 계속 불어나면서 이달 15일에는 처음으로 300조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물론 시행 초기 단계인 만큼 정책 효과를 단정하기는 이르다. 다만 공공 재원이 일부 투입되거나 정책적 유인이 제공되는 만큼, 실효성과 형평성에 대한 점검은 보다 촘촘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 성장'이라는 이름을 내건 정책이라면 시장의 숫자뿐 아니라 국민의 체감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증시 활성화의 과실이 보다 넓게 확산될 때 정책의 설득력도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이다.

/godhe@

###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20일 (음 4월 4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몸관리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세요. **60년생** 오늘은 모든 사람이 나의 벗이 됩니다. **72년생** 모든일이 대체로 원만히 풀려 나갑니다. **84년생** 여행을 떠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49년생**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61년생** 사랑은 기대도 하지 생각도 못했던 곳에서 뜻밖에도 다가옵니다. **73년생** 참으로 꿈같은 시기를 만났습니다. **85년생** 삶에 의지가 새롭게 솟구칩니다.



**50년생** 상하가 서로 더욱 화합하여 우의를 돈독히 합니다. **62년생** 유혹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될 것입니다. **74년생** 특히 건강에 주의하세요. **86년생** 애정운이 한층 좋습니다.



**51년생** 다소 좋지 않은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63년생** 조용히 때를 기다려야 하는 시기입니다. **75년생** 조금은 의욕이 떨어지고 기운이 없습니다. **87년생** 남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됩니다.



**52년생** 어느 기로에 서서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64년생** 나쁜 것은 가급적 멀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76년생** 경제적 빈곤이 다소 걱정됩니다. **88년생** 양심에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53년생** 여행은 되도록 삼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65년생** 일이 순조롭게 잘 풀려 나갑니다. **77년생** 자녀에게 좋은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89년생** 일에 있어서 너무 급하게 나아가지는 마세요.



**54년생** 지병이 있다면 꾸준한 치료를 요합니다. **66년생** 흥과 길이 서로 상반되어 있습니다. **78년생** 우연한 기회에 복운을 만나 마음이 평온해 지겠습니다. **90년생** 외출을 삼가하세요.



**55년생** 각별한 주위가 더욱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67년생** 물관리에 유념하세요. **79년생** 커다란 혜택을 보게 됩니다. **91년생** 허황되게 갖지 못할 물건에 마음을 두게 됩니다.



**56년생** 생각도 못했던 좋은 선물을 받습니다. **68년생** 소박한 행복을 꿈꾼다면 매우 길하겠습니다. **80년생** 이직 생각이 당분간 하지 마세요. **92년생** 재물운이 매우 좋습니다.



**57년생** 대처를 충분히 하세요. **69년생** 문제가 생기면 이미 때는 늦은 것입니다. **81년생** 구설수에 오르는 일을 조심하고 재물을 잘 감시하세요. **93년생**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마세요.



**58년생** 여행을 떠나는 것은 무언가 얻기 위함입니다. **70년생** 즐거운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82년생** 큰 과업에 집중하세요. **94년생**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만 급급하지 마세요.



**59년생** 포부를 크게 가진다면 뜻대로 소원이 성취됩니다. **71년생** 손실이 따른다 해도 이것을 투자라 생각하세요. **83년생** 선물이나 용돈을 받게 됩니다. **95년생** 기쁜 좋은 날입니다.



## 김상회의四季 여래 삼불능

육신통이라는 초능력을 가지신 석가여래도 못하시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다. 첫째가 '불능면 정업중생' (不能免 定業衆生), 즉 정해진 업은 고칠 수 없고, 중생은 제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자신이 지은 행위는 자신이 받는 것이며 따라서 본인이 지은 업은 본인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엄연한 인과(因果)의 법칙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는 '불능도 무연중생' (不能度 無緣衆生)으로서 인연이 없는 중생은 부처님도 제도할 길이 없다는 뜻이다. 이러한 의미로서 불가에서는 부처님이나 가르침을 만나지 못하는 여덟 가지 장애라 하여 특별히 '팔난' (八難)이라고 하는데, 지옥에 떨어지고 아귀나 축생으로 태어나는 것, 외도의 수행자가 태어나는 오백 겁을 사는 천에 태어남, 외진 변방에 태어나 교화를 받지 못하는 것, 업장이 깊어 맹인이 나 귀머거리로 태어나 부처님을 만나도 볼 수 없으며 법을 설하여도 들을 수 없는 것, 등등 이렇게 붓다의 가르침을 들을 수 없는 여덟 가지 상황을 팔난이라고 한다.

오죽하면 박복한 중생은 불교를 만나기 어렵다고 하겠는가. 세 번째는 '불능진 중생세계' (不能盡 衆生世界)로서 일체중생을 한꺼번에 다 제도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한다. 도과를 이루어 육신통이라는 막강한 능력이 있음에도 이렇게 못하는 세 가지는 다른 것들도 아닌 중생을 제도과 관련된 것들이다. 그만큼 세속적 가치에 함몰된 중생들은 삶과 죽음을 뛰어넘는 진리를 하찮게 본다는 의미밖에 안 된다. 그렇기에 기독교 성경에서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한 것도, 중생들 모두가 귀가 있고 눈이 있어도 진리는 구하는 자에게만 보이고 들리는 것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진주는 진주의 가치를 아는 자에게만 보석인 것이다. 세상에 못 할 것이 없는 여래라 할지라도 삼불능이 있다는 것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세익한빌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문제출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옆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8	5	4		6	2	1	3
3				9			6
6			1				2
					3		
7	9					6	5
		1					
9				5			7
5			3				9
1	3	8	7		5	2	4

7		2		8	3		1
	9				1	5	7
	3						5
5	2			4			
6			3	5	2		4
				1			2
3							5
	5	8	7				1
2			9	7		8	3

할인도서

7	2	9	6	4	9	8	8	1
6	8	9	1	6	2	7	9	9
4	1	9	2	7	9	8	6	
8	4	6	9	9	8	1	2	7
9	9	7	2	1	8	8	6	4
1	6	8	7	8	2	9	9	2
2	9	8	8	7	1	6	4	9
9	7	4	8	6	9	2	1	8
8	1	2	4	9	6	7	9	8

8	7	8	4	6	9	1	2
2	1	9	7	8	4	8	9
6	9	1	9	2	7	4	8
4	2	8	6	1	9	9	7
7	8	6	2	9	8	1	2
9	8	4	8	7	1	6	2
9	9	2	4	6	8	7	8
8	4	9	1	9	2	8	6
1	6	7	8	9	2	9	4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915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19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 교사 부담 덜고 체험학습 살린다 서울시교육청, '통일교육버스' 운영

체험학습 운영 전반 교육청 담당  
평화·통일·안보 9개 코스 기획  
405 학급 신청... 전년비 3배 ↑

학교 현장체험학습을 둘러싼 안전 책임과 행정 부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교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체험학습 지원을 직접 맡는 '통일교육버스'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은 5월부터 12월까지 '2026 통일교육 현장체험학습(통일교육버스)' 사업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학교가 자체적으로 준비하던 프로그램 구성, 장소 섭외, 버스 임차, 강사·안전요

원 배치, 여행자보험 가입, 식사 제공 등 체험학습 운영 전반을 교육청이 직접 담당하는 방식이다.

이번 사업은 초등학교 4학년 이상과 중·고교 희망 학급 및 동아리 152교 288학급을 대상으로 한다. 초6·중3·고3 학생들도 학년말 전환기 교육과정 기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12월까지 운영한다.

교육청은 평화·통일·안보 관점에서 분단과 평화의 의미를 체험할 수 있는 9개 코스를 기획하고, 학교가 이를 선택해 교과 수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의 전문 과정을 이수한 강사도 동행해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최근 현장체험학습을 둘러싼 안전사고 책임과 행정 부담 문제로 학교 외부 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수요는 늘고 있다. 올해 통일교육버스 신청은 405학급으로 지난해 138학급보다 약 3배 증가했다. 이에 교육청은 올해 예산을 5억1900만원으로 늘리고 지원 규모도 2023년 22교 58학급에서 올해 152교 288학급으로 확대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들이 행정 업무 부담을 덜고 학생 지도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 성남시, 5년 만에 CIS 시장개척단 재가동

중앙아시아 바이오·헬스케어 공략

성남시가 지역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의 해외 수출 판로 다변화를 위해 5년 만에 독립국가연합(CIS) 시장개척단을 중앙아시아에 파견했다.

시는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카자흐스탄 알마티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지역 중소기업 7개사로 구성된 시장개척단을 보내 현지 수출 상담과 전시 마케팅 활동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파견은 코로나19 확산으로 2021년 온라인 상담 방식으로 전환된 이후 5년 만에 재가동 오프라인 CIS 시장개척 사업이다. 북미·동남아에 집중됐던 기존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 신흥시장 개척 수요가 커지면서 중앙아시아 공략에 나선다는 설명이다.

시장개척단에는 해외진단기기, 피부미용 의료기기, 건강관리 솔루션, 제약 원료 및 바이오 소재 등을 생산하는 성남지역 유망기업들이 참여했다. 참가 기업들은 알마티 상담회를 시작으로 20일부터 22일까지 타슈켄트에서 현지 유통사와 의료기기 바이어를 대상으로 집중 수출



성남시 소재 한 기업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2025년 중동시장개척단 수출상담회에서 해외 바이어들과 일대일 상담을 하고 있다. /성남시

상담을 이어간다. 특히 타슈켄트 일정은 제약 전문 전시회 '파라 유라시아 2026' 한국공공관 운영과 연계해 진행돼 유라시아권 전문 구매자 접점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중앙아시아는 최근 의료 인프라 고도화 정책과 함께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투자 확대가 이어지는 지역이다. 인구 증가와 보건 의료 현대화 수요가 맞물리며 의료기기 및 헬스케어 제품 수입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성남(경기)=유진재 기자 yujin@

# 교육부, AI·디지털 평생학습 강좌 활성화

대학 우수 학습자원 활용해  
온라인 공개강좌 무상 제공  
건국대·서울대 등 신규 선정

교육부가 대학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고등교육 수준의 강좌를 무료로 제공하는 '대학 중심 평생학습 온라인 공개강좌 활성화 사업'의 올해 신규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인공지능(AI)·디지털 분야 강좌를 대폭 확대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26년 대학 중심 평생학습 온라인 공개강좌 활성화 사업' 신규 운영기관 선정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성인학습자가 재교육(reskilling)과 향상교육(upskilling)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 등의 우수 학습자원을 활용해 온라인 공개강좌를 무상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AI·디지털 분야 강좌를 늘리고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AI 전환(AX), 로봇 등 첨단 기술 역량을 갖춘 융합형 실

무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췄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선도대학에는 총 10개교가 선정됐다. 자율 분야에서는 ▲건국대(글로벌) ▲부산대 ▲서울대 ▲성균관대 ▲울산대 ▲이화여대 ▲중앙대가 이름을 올렸다. AI·디지털 분야에서는 ▲광운대 ▲세종대 ▲한성대가 선정됐다.

개별강좌 운영기관으로는 총 10개 대학이 뽑혔다. 자율 분야는 ▲부산디지털대 ▲서울디지털대 ▲세종대 ▲영남대 (2개 강좌) ▲인천대 ▲한국방송통신대 ▲한양대, AI·디지털 분야는 ▲경희대 (2개 강좌) ▲부산디지털대 ▲성균관대 ▲한국방송통신대, 경제·금융 분야는 ▲대구한의대가 선정됐다.

국내외 석학강좌 사업 운영기관으로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선정됐다. 위대한 수업'으로 알려진 이 사업은 AI·디지털 분야를 비롯해 인문·사회·과학·예술 등 다양한 분야 석학 강의를 EBS 정규방송과 K-MOOC 플랫폼을 통해 제공한다.

재직자를 위한 AI·디지털 집중과정도 새로 선정됐다. 4주 내외 단기 캠프형 'AI·디지털 30+ 집중캠프' 운영기관으로는 ▲계원예술대 ▲동국대 ▲명지대 ▲명지전문대 ▲춘해보건대가 선정됐다.

3개 인력 묶음형 온라인 과정인 'AI·디지털 묶음강좌' 운영기관으로는 ▲대구한의대(바이오코딩과 생성형 AI를 활용한 1인 AI 마케팅 과정) ▲서강대(AI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 업무혁신 및 의사결정 지원 과정) ▲서울디지털대(공공데이터 분석 및 AI 실무)를 위한 비즈니스 QGIS) ▲순천향대(AI 의료융합 전문가 되기)가 뽑혔다.

이들 과정은 재직자가 직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AI·디지털 실무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주말과 저녁 시간 중심으로 운영되며, 이수자에게는 디지털 배치가 발급된다. 신규 강좌는 K-MOOC의 경우 이르면 10월 말부터, 재직자 집중과정은 교육과정 개발이 마무리되는 9월 이후부터 수강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소득기준 완화

소득 5000만원 이하로 대상 확대  
서울시, 내달 5일부터 개선안 적용

서울시가 전월세 부담이 커진 청년층을 위해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 절차는 간소화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개선안을 19일 발표했다. 개선 사항은 6월 5일부터 적용된다.

현재 서울시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인 무주택 청년이 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을 경우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금리는 최대 연 3.0%이며, 본인 부담 금리는 최소 연 1.0%다.

이번 개선의 핵심은 소득 기준 완화다. 기존에는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청년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000만원 이하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이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넓어진다.

신청 절차도 간편해진다. 그동안 서울시 추천서 발급 단계에서 별도의 소득 심사를 거치며 각종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은행 대출 실행 시 심사과 통합해 한 번에 처리한다.

이에 따라 추천서 발급 신청 때는 주민등록등본과 주거급여 비대상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이번 사업 개선안은 오는 6월 5일부터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120다산콜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근로자와 취업준비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 경과원, 파주 본원 첫 업무... 경기북부 균형발전 도모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일환  
산업혁신 생태계 조성, 현장중심 지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파주 본원 시대를 열고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출발에 나섰다.

경과원은 지난 18일 경기도 파주시 초롱꽃로 117-46 동보타워 5층에 마련된 파주 본원에서 첫 업무를 시작했다. 김현곤 원장을 비롯한 경영진도 간부회의를 열고 경기북부 산업 현안 대응과 현장 중심 기업 지원 강화 방안을 점검하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이전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18일 파주 본원에서 현판식을 열고 첫걸음을 내디뎠다. /경과원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경기북부 기업지원 기능 강화와 균형발전 거점 역할 수행을 위한 상징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경과원은 앞으로 북부 산업 현장 접근성을 높이고 기업 애로 대응 체계를 강화해 경기북부 산업혁신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한 정책·산업 지원 서비스를 보다 가까이에서 제공하는 현장 중심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파주 본원에는 경영진과 기획조정실, 인사총무팀, 재무회계팀, 감사실, 북부균형성장지원TF팀 등 주요 부서 직원 45명이 첫 출근해 업무를 시작했다. 특히 '북부균형성장지원TF팀'을 신설해 기업 애로 대응과 산업 발굴, 현장 소통 기능을 강화한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19 | 해질 / 19:38

5월 20일(수)  
음력 : 4월 4일

수도권 날씨  
19~21°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16/21, 동두천 17/21, 가평 16/20, 파주 17/20, 서울 19/21, 양평 17/20, 인천 19/21, 수원 18/20, 용인 18/20, 평택 17/19, 백령도 16/18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이란전 불뚱, 주담대·차 할부까지 번졌다...G7 금리 22년 만에 최고 /사진 뉴스

▲ 세금으로 트럼프 무도회장 경호비?...美상원서 '절차 위반' 제동

▲ 필리핀, 중국계 철강공장 급습 69명 체포...유해물질 취급 의혹

▲ 이란 대통령 "대화는 굴복 아냐...이란 존엄·권리 절대 양보 없어"

▲ "日초당파 일중우호연맹 간부 등 주일 중대사면담...미중회담 등 논의"

▲ 우버, DH 지분 확대에 배민 인수설까지...배달시장 '지각변동' 예고



K-푸드 글로벌서 모디슈머 열풍  
니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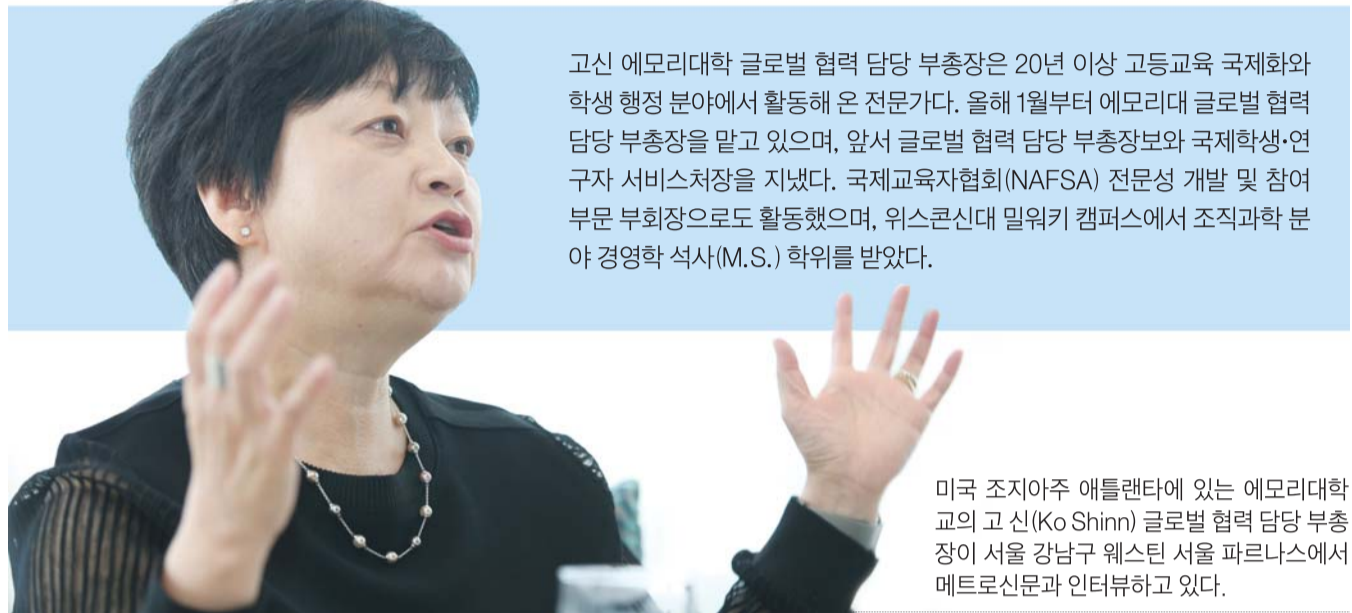
AI·스마트물류 등 약국가 유통 혁신 나선다  
L2



# “기술경쟁보다 인류 위한 책임... 긍정적 변화 이끌 인재 원해”

## 특별 인터뷰 | 고 신 美 에모리대학교 부총장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있는 에모리대학교가 올해 포브스(Forbes)가 선정한 '뉴 아이비(New Ivies)'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 남부를 대표하는 사립 명문 대학으로, 전통적인 아이비리그에 버금가는 교육 경쟁력과 기업 선호도를 인정받은 것이다. 코카콜라 창업자 아사 캔들러 가문의 지원 속에 성장한 에모리는 최근 인공지능(AI) 시대 대학의 역할을 '기술 경쟁'보다 '인류를 위한 책임'에서 찾고 있다. 지난달 방한한 고신(Ko Shinn) 에모리대학 글로벌 협력 담당 부총장(Associate Vice Provost for International Services & Global Engagement)은 “AI든 어떤 분야든 혁신은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데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메트로신문은 고신 부총장과 만나 AI 전략부터 입시 철학, 한국 학생들에 대한 평가까지 에모리가 바라보는 글로벌 고등교육의 방향을 들었다.



고신 에모리대학 글로벌 협력 담당 부총장은 20년 이상 고등교육 국제화와 학생 행정 분야에서 활동해 온 전문가다. 올해 1월부터 에모리대 글로벌 협력 담당 부총장을 맡고 있으며, 앞서 글로벌 협력 담당 부총장보와 국제학생·연구자 서비스처장을 지냈다. 국제교육자협회(NAFSA) 전문성 개발 및 참여 부문 부회장으로도 활동했으며, 위스콘신대 밀워키 캠퍼스에서 조직과학 분야 경영학 석사(M.S.) 학위를 받았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있는 에모리대학교의 고신(Ko Shinn) 글로벌 협력 담당 부총장이 서울 강남구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메트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 ◆ 에모리대학 “AI는 인류에 어떻게 봉사할지 묻는 일”

에모리대학과 코카콜라의 인연은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코카콜라 창업자 아사 캔들러는 에모리대학의 애틀랜타 이전과 캠퍼스 조성 과정에서 재정 지원을 했고, 이는 대학이 현재의 연구중심 사립대학으로 성장하는 기반이 됐다. 이후 에모리대학은 연구 경쟁력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강조하는 대학으로 성장했다. 이런 방향은 AI 전략에서도 드러난다. 대학이 내세우는 핵심 개념은 'AI.Humanity'다. AI를 얼마나 빨리 개발하고 활용하느냐보다, AI가 인류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쓰여야 하는지를 먼저 묻는다는 의미다.

고 부총장은 “에모리대학은 AI가 인류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먼저 묻는다”며 “단순히 AI를 어떻게 만들고 활용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설명했다.

에모리대학은 AI를 특정 전공의 기술 과제로 한정하지 않고, 대학 전반의 교육·연구 체계를 바꾸는 흐름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2022년부터 AI 관련 연구 교수를 50명 이상 채용하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채용 분야도 공학 계열에만 국한하지 않았다. AI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다루기 위해 보건·법·인문·경영 분야까지 교수진을 넓히고 있다는 설명이다.

고 부총장은 “중요한 것은 이 교수들이 컴퓨터공학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AI는 공중보건, 법학, 인문학, 비즈니스와 자유기업 등 에모리대학이 가르치는 모든 분야와 연관돼 있다”라고 말했다.

AI 윤리 논의도 에모리대학이 중점을 두는 분야다. 그는 에모리대학 내 윤리센터가 AI의 윤리적 활용에 관한 국내외의 논의를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술을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기술이 사회와

### 포브스 선정 ‘뉴 아이비’ 명문대학 코카콜라 창업 가문 지원 속 성장

### 전공별 AI 연구교수 50명 이상 확충 대학 교육 아우르는 AI 혁신 앞장 윤리적 활용 관련 국내외 논의 주도

### 기술이 사회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 공동체 기여·잠재력 보는 입학철학 학부 4년간 깊이있는 진로탐색 지원

### 개교 첫 유학생 독립운동가 윤치호 韓유학생 규모 3위... 네트워크 탄탄 한국 대학과 파트너십 가능성 제시

### 학생들에 스스로에 대한 탐구 당부 직업 넘어서 ‘삶의 목적’ 발견하길



인간에게 미칠 영향을 함께 다루겠다는 취지다.

고 부총장은 “에모리대학은 AI의 도덕적 영향과 책임에 대해 세계적 논의를 이끄는 데 역할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립대학이라는 구조도 AI 시대 대응에 강점으로 작용한다고 했다. 주립대학보다 정책 변화에 덜 구속되는 만큼, 교수 채용과 투자, 교육과정 개편에서 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사립 기관이라는 점은 주립 대학에 비해 훨씬 큰 유연성을 제공한다”며 “같은 규제 체계에 묶이지 않고 전략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채용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했다. 이어 “AI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분야에서 이런 기민함은 정말로 소중한 자산”이라고 덧붙였다.

### ◆ “성적은 기본...공동체에 기여할 학생이 인재상”

에모리대학의 입학 철학은 정량 지표만으로 학생을 판단하지 않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학업 역량은 기본 전제지만, 그보다 학생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공동체적 가치를 지녔는지를 함께 본다는 것이다.

고 부총장은 “에모리대학은 신입생 선발에서 성적과 시험 점수만 보지 않는다”며 “학업 역량은 기본이지만, 학생이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잠재력을 더 중요하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배려와 성실함, 리더십을 어떻게 보여줬는지를 중요하게 본다고 설명했다. 에모리대학이 강조하는 ‘인류를 위한 봉사’라는 가치와도 맞닿아 있다.

고 부총장은 “우리가 찾는 학생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사회와 공동체, 그리고 궁극적으로 세계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갈 사람을 원한다”고 했다.

지원자가 제출하는 자기소개서와 학업·진로 계획서도 중요한 평가 자료다.

점수와 순위로는 드러나지 않는 학생의 가치관과 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그는 “어떤 점수나 순위도 담아낼 수 없는 학생 본연의 모습과 잠재력을 거거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의대 선호 현상과 미국식 의학 교육 구조의 차이도 언급했다. 미국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의대에 진학할 수 없고, 학부 과정을 먼저 마친 뒤의대에 지원한다. 에모리대학 역시 의대 진학을 준비할 수 있는 ‘프리메드(pre-med) 과정’을 갖추고 있지만, 이 과정은 단순히 의대 준비 기간이 아닌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탐색하는 시간으로 본다는 설명이다.

고 부총장은 “미국 시스템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학부 4년이 학생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진심으로 원하는지, 어디에 열정이 있는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된다는 점”이라며 “결국 의사가 되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그 탐구의 시간은 훨씬 더 깊이 있는 전문인을 만들어낸다”고 말했다.

### ◆ 윤치호로 시작된 인연...한국, 인도·중국 이어 유학생 3위

에모리대학과 한국의 인연은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에모리가 설립된 지 55년 뒤인 1891년, 한국의 독립운동가 윤치호가 에모리 최초의 외국인 학생으로 입학했다. 고 부총장은 이 역사를 에모리의 글로벌화가 시작된 상징적 장면으로 설명했다.

고 부총장은 “에모리대학이 글로벌 대학으로 외연을 넓혀가는 과정에서 한국은 처음부터 함께한 나라”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현재도 에모리대학 외국인 유학생의 주요 출신국 가운데 하나다. 고 부총장은 2014년 에모리에 합류한 이후 한국이 중국, 인도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 비중이 높은 국가로 꾸준히 자리해왔다고 설명했다.

한국 학생 유입이 꾸준한 만큼, 입학 전

적응을 돕는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에모리대학은 한국 학생과 동문을 연결하는 ‘패스포트 투 에모리(Passport to Emory)’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 신입생들은 입학 전부터 동문 네트워크와 연결되고, 대학 공동체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받는다.

고 부총장은 한국 학생들의 강점으로 학업 역량뿐 아니라 존중과 배려, 공동체 책임감을 꼽았다. 그는 “에모리대에 오는 한국 학생들은 늘 인상적”이라며 “학문적으로 매우 잘 준비돼 있고 사고가 치밀하며 학업에 성실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것만큼이나 인상적인 것은 한국 문화에서 비롯된 다른 사람에 대한 깊은 존중과 배려,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이라며 “이런 태도가 캠퍼스 전체 분위기를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고 평가했다.

한국 대학과의 협력 가능성도 열려있다. 에모리대학은 글로벌 파트너십을 맺을 때 연구 탁월성, 인류를 위한 봉사라는 가치, 장기적 협력 가능성을 함께 살핀다. 단순히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데 그치는 관계보다 실제 교류와 성과가 이어지는 협력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고 부총장은 “한국의 학문 문화는 엄격함과 장기적 헌신을 중시하는 것으로 느꼈다”며 “이는 에모리대가 생각하는 파트너십의 방향과 잘 맞는다”고 말했다.

끝으로 고 부총장은 에모리대학에 진학을 고려하는 한국 학생들에게 “에모리에 와서 탐험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자신을 진심으로 이끄는 것이 무엇인지, 평생 열정을 쏟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길 바란다”며 “단순한 직업이 아닌 삶의 목적을 발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미래를 넘어서 생각해 달라”며 “에모리대학 교육에서 가장 많은 것을 얻어가는 학생들은 자신이 살고 싶은 삶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 메트로 한줄뉴스



▲NBA 샌안토니오, 콘퍼런스 결승서 ‘서부 1위’ OKC 기선 제압 /사진 뉴시스  
▲인천 이청용, K리그1 15R MVP...K리그2는 전남 하남

▲브라질 네이마르, 북중미 최종 명단 승선...통산 4번째 월드컵 도전  
▲이정후, 5경기 연속 안타 기록...4회 허리 경련 증세로 교체

▲대한민국농구협회, 나고야 AG 출전 3대3 남녀 대표팀 선발  
▲대국민 스포츠 복지 서비스 튼튼머니, 예산 80 억원으로 확대